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5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22일(음력 3월 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D-43’ 6·3지방선거 불자 후보 누가 있나

전국 자치단체 장·의원 선출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 잇따라
공천 갈등 속 불자 후보 ‘눈길’
‘미니 총선’에 청불회장도 거론

여수령 · 신중일 · 임은호 · 하성미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이 선출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5월 14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앞두고 각 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자 후보들도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이승현 조계사 총신도회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관심을 모았다. 이 후보는 당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그는 3월 25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밀실공천에서 대표적인 불자인 주호영 의원과 저를 컷오프한 것은 불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은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힌다. 주 의원 역시 당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불도(佛道)’ 부산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전재수 후보는 동국대 출신으로 불교계와 인연이 깊다. 지역구(부산 북구갑) 활동 시절부터 사찰 법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스님·신도들과의 유대가 끈끈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태신앙’을 자처할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다. 동대부중 재학 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는 등 불교를 ‘삶의 철학이자 스승’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불자인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국회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 후보는 4월 14일 화성 용주사를 찾아 주지 성효 스님을 예방했다.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용주사를 참배해 온 추 후보는 용주사가 “개혁 정신을 되새기며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불교본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우상호 강원지사 예비후보도 더불어민주당 불자회에서 활동한 불자다. 우 후보는 지난 2월 월정사에서 열린 병오년 신년하례법회에도 참석하는 등 지역 불심 잡기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문대림 후보도 청와대불자회 수석부회장 출신의 독실한 불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소 10곳 이상에서 ‘미니 총선’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하정우 청와대불자회장(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의 차출 여부가 관심이다.

하정우 수석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불자회장에 내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혜우(慧友)’라는 법명을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취임법회에서는 “불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청불회 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 수석에 앞서 부산 북구갑 출마가 거론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월 14일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불자인 조 대표는 4월 8일 대구 동화사를 찾아 주지 선광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선대부터 불자였던 인연을 소개하며 불교계의 관심을 요청했다.



일곱 선사 한국선을 설하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봉은사 담선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담선대법회는 조계종이 중점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의 지향점인 간화선을 널리 알리고 호국불교 전통을 잇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한국불교 역사 속 선지식들의 수행과 전법을 주제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4월 13일 석종사 조실 금아 혜국 스님이 ‘성철 스님’을 주제로 법을 설한 것을 시작으로 △14일 대흥사 동국선원 유나 남명 정찬 스님(서산 대사) △15일 축서사 조실 금곡 무여 스님(한암 스님) △16일 백양사 수좌 월송 일수 스님(서옹 스님) △17일 범어사 선덕 금산 지환 스님(용성 스님) △18일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금모 불산 스님(향곡 스님) △19일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봉정 영진 스님(태고 보우 국사)이 차례로 법석에 올랐다. 사진은 4월 15일 열린 법회에서 무여 스님이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 〈관련 법문 8·9면〉

글·사진=임은호 기자

서울시의회, 가톨릭대회에 교육예산·시설 동원 추진

박칠성 의원 등 17명 4월 6일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발의
학교시설을 숙박 · 급식에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학생들에 직 · 간접 선교 효과”
불교계 “강력 대응 나서겠다”

가톨릭 선교 행사인 2027년 제41차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종교 편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 제공과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자원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훼손과 교육 중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칠성 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17명은 4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확보·제공하며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대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담겼다. 제4조(지원사업)와 제8조(숙박·급식 등 학교시설의 활용 지원)에 따르면 청년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식수대·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실상 공교육 시설을 숙박 시설로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기준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사용료가 실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공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감은 학교장이 세계청년대회 운영에 필요한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훼손·결함 시 별도의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어 실제 어느 정도의 교육예산이 투입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원 범위는 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조례안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역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심지어 조례안 제5조(세계청년대회 지원 협력)에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직적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한 셈이다.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행사 지원에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정의 공익성과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종교행사로, 특정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위축감이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향문 스님은 “세계청년대회는 명칭과 달리 사실상 각국 가톨릭 신자들이 참여하는 종교행사”라며 “이 같은 행사에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과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인 강요가 없더라도 학생들이 특정 종교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간접적인 선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발의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종교 편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조례를 통해 유사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파 지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보화 스님은 “세계청년대회는 교황 방문과 미사 등 종교 의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학교시설이 숙박 및 운영 공간으로 활용되고 관련 프로그램이 연계될 경우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종교행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추진이 난항을 겪자 우회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종교편향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도 “종교행사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처럼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에 폐기 의견을 제출하고 항의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관련기사 5면〉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교통약자 대상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요 명소 방문을 위한
차량 이동 서비스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영기간 2026. 4. 30.(목) ~ 11. 22.(일)
※추첨제 모집기간 : 2026. 4. 17.(금) ~ 4. 26.(일) / 10일간
추첨제 종료 후 잔여분은 선착순 접수로 운영(이용일 5일 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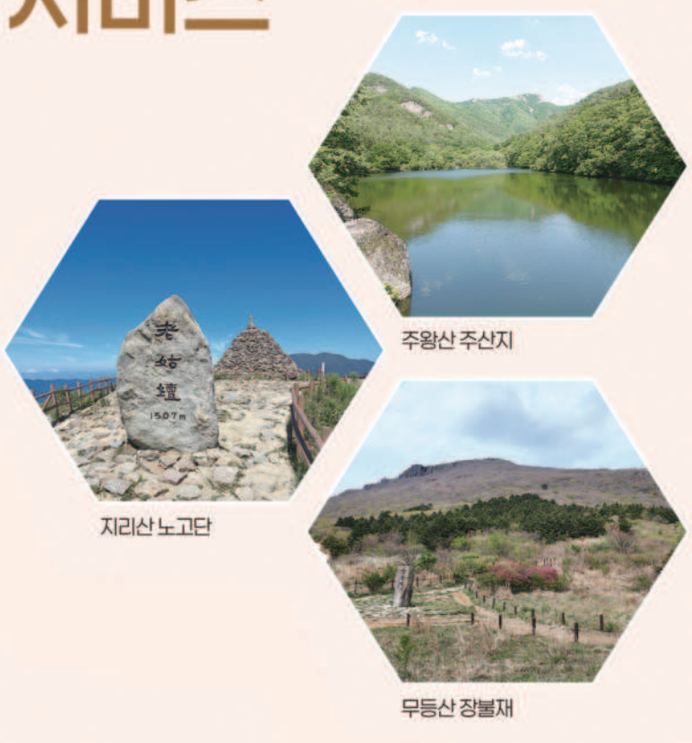
- 운영대상 교통약자 및 동반가족
※교통약자 : 장애인 · 임신부 · 만 5세 이하 영유아(‘20년 이후 출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56년 이전 출생)

- 운영장소 14개 명소(북한산·지리산 등 11개 국립공원)

- 신청방법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으로 신청
(http://reservation.knps.or.kr)

- 문 의 1670-9201 (국립공원공단 고객센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주왕산 주산지
지리산 노고단
무등산 장불재

73명 수행자, 구법의 길 나서다

제46회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
비구 42·비구니 31명 총 73명 수계
진우 스님 "고통받는 이웃 벗 돼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4월 8일부터 9일간의 엄격한 정진과 갈마를 거쳐 구족계를 수지한 73명의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이 4월 16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열린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이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73명의 출가 수행자가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를 온전히 수지하며 인천(人天)의 스승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6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회향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낭독하는 가운데 지난 4월 8일 입재부터 회향까지 9일간의 정진과 갈마 일정을 알리는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 42명과 식차마나니 31명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수행자로 거듭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승가의 후학들을 격려하며 출가 수행자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과 자비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길은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구법의 길이자, 온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전법의 여정"이라며 "인도와 중국을 거쳐 1700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역사는 치열한 구도행과 더불어 계율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계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스님은 현대 사회에서의 승가 역할을 당부하며 "사바세계는 인드라망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연 관계를 깊이 살펴 사회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친근한 벗이 되어야 하며, 갈등하는 양측에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수계 제자들에게 '초발심'과 '자비행'을 당부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정오 스님은 "오늘 받은 구족계는 단순한 규범을 넘어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청정한 법맥이자 지혜의 배"라고 수계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구족계를 수지한 73명을 대표하는 수지자에게 수계증 및 도첩이 수여됐으며 사홍서원 후 폐식했다.

이번 제46회 수계산림에는 총 78명이 지원했으며, 4급 승가고시 및 갈마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구 42명, 비구니 31명이 도첩을 받았다.

태고종 법규위원장 관성·문예원장 송월 스님 임명

중앙종회 제156회 임시회서
주요 인사안 임명동의 의결
2025년도 결산안 원안 통과


태고종 중앙종회는 4월 1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56회 임시회를 열고 인사안과 결산안 등을 논의했다.

태고종 법규위원장에 관성 스님, 불교문예원장에 송월 스님이 임명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는 4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56회 임시회를 열고 종단 주요 인사안 및 2025년도 결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신임 법규위원장에는 관성 스님이 임명됐다. 관성 스님은 2001년 양평 용천사에서 청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총무국장, 총무원 호법위원,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북동부교구종무원장, 보현사 주지를 맡고 있다.

관성 스님은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해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종헌종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불교문예원장에는 송월 스님이 임명 동의를 받아 임명됐다. 송월 스님은 전북교구종무원 포교국장, 교무국장, 총무원 중앙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군산 성흥사 주지, 전북지방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송월 스님은 "종단 불교문예 진흥을 위한 귀중한 직책에 임명 동의해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전통불교문화 계승과 보존,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법위원에는 해운·만허·일주·원오 스님이, 초심부원장에는 법진 스님이, 초심위원에는 철오·진공 스님이 임명 동의를 얻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이날 중앙종회는 2025년도 총무원, 한국불교신문사, 월간불교, 동방불교대학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했다. 결산 결과 총무원은 45억3231만7223원, 한국불교신문사는 1억3959만3725원, 월간불교는 1억7248만8002원, 동방불교대학은 4억4309만9479원으로 집계됐다.

개회식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지난해 우리 종단은 광화문 영산재와 국제보살계 봉행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교세 확장과 전통 계승을 함께 도모해왔다"며 "이러한 모든 노력과 성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종회의원 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혜안을 통해 점검받게 된다는 점에서 총무원 또한 무거운 책임과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을 비롯한 전 종무직원들은 애종심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총무원은 모든 종무행정의 과정에서 종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종단 운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결산은 단순히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출발점"이라며 "이 자리에서 이뤄지는 논의와 결실이 곧 2026년 한 해 종단 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보다 지혜롭고 원만한 종단 운영을 위한 혜안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제81차 조계종 원로회의 4월 22일

원로의원 선출 건 등
도법·영담·정완 대종사

신임 원로의원 선출을 위한 제81차 조계종 원로회의가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4일 14일자 공고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날 원로회의는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과 '기타사항'을 안건으로 다룬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31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취성 도법 대종사(금산사)와 영담 덕운 대종사(쌍계사), 지봉 정완 대종사(용주사)를 신임 원로의원으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원로회의는 원로회의법에 의해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은 승납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 원로 비구다.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김내영 기자

은해사 종회의원 선거에 용주·선지 스님

중선위, 4월 21일 자격심사
5월 7일, 육화원서 보궐선거


용주 스님


선지 스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과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이 출마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에 따르면 4월 16일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용주 스님과 선지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성로 스님의 은해사 주지 선출에 따른 것으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중앙선관위는 4월 21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5월 7일 오후 1시 은해사 육화원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사찰음식 장인 1·2급 13명 위촉

문화사업단 제2회 위촉식
"사찰음식 대중화 매진을"



사찰음식 대중화를 이끌 전문가인 '사찰음식 장인'이 위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14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2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을 통해 1급 장인 6명, 2급 장인 7명 총 13명의 장인이 새로 위촉했다. 1급 장인에는 지견·혜범·주호·향밀·경운·유화 스님이, 2급 장인에는 진허·선행·성돈·하경·덕원·덕진·우일 스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사찰음식 장인(1·2급)으로 총 32명이 활동하게 됐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는 오랜 기간 수행과 실천을 통해 사찰음식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오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사찰음식이 우리 사회와 세계 속에서 바르게 이해되고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달라"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가족과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 구독·법보시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이는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해 선업을 쌓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비록 한 장의 신문이지만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하는 공덕을 쌓는 포교 실천입니다.
현대불교신문 권선은 나의 이웃과 친지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뜻 깊은 포교불사입니다.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로 희망의 연등을 밝히는 포교불사에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월구독료 1만원 | 구독 및 법보시 문의 ☎ 02)2004-8214

“전법은 불자 본분” 경남 포교 결집대회 성료

‘경남 · 밀양 포교역량 결집대회’
4월 12일 밀양 용궁사 일원서
법회 · 트레킹 · 노래자랑 등 다채
1500명 “평화로운 공동체” 서원

밀양 용궁사=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2일 밀양 용궁사 및 밀양 용두산 아리랑길에서 ‘경남 · 밀양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참가 사부대중은 ‘대중실천선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평화롭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서원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포교를 서원한 사부대중 1500여 명의 간절한 다짐이 밀양 용궁사에 울려 퍼졌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2일 밀양 용궁사 및 밀양 용두산 아리랑길에서 ‘경남·밀양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남·밀양 포교역량 결집대회’는 지난해 6월 ‘인천·강화 포교역량 결집대회’와 11월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대회’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열린 대회다.

대회는 오전 11시 식전 문화공연으로 막을 올린 후 1부 법회와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용두산 아리랑길 트레킹’, 2부 ‘전국사찰노래자랑-밀양 용궁사 편’과 회향식으로 진행됐다.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대회사에서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포교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장 진각 스님(표충사 주지)은 환영사를 통해 “본말사와 불자들이 신행과 포교의 길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의 자리”라며 “이러한 교류가 지역 불교를 건강하게 이끄는 힘이 되고,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불심이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치사에서 “이번 결집은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하는 장엄한 법석”이라며 “불법이 이웃과 사회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이번 결집대회는 사찰과 신도단체가 함께 협력과 연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직 강화와 포교 활성화를 통해 불자 공동체의 역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고향 밀양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려 감회가 깊다”며 “이번 자리가 불자 간 화합과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안병구 밀양시장도 “지역과 불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중실천선언’을 통해 △정진과 자기 성찰 △자비행 실천 △불자 공동체 화합 △지혜와 자비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다짐했다. 또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지역과 사회를 밝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법회 후에는 ‘엄홍길 대장과 함께 걷는 밀양 용두산 아리랑길 트레킹’과 ‘전국사찰노래자랑-밀양 용궁사 편’이 진행돼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운문사·봉녕사 ‘여성 단기출가학교’ 연다

운문사, 6월 29일~7월 5일
봉녕사, 7월 29일~8월 5일

비구니 수행사찰인 청도 운문사와 수원 봉녕사가 여성들을 위한 단기 출가학교를 운영한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박 7일 동안 ‘운문사 바라밀 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부터!-백프로 리얼 스님의 하루 살아보기’를 주제로 열릴 이번 출가학교의 모집대상은 대중생활이 가능한 17세부터 65세 여성 15명이다.

새벽 4시 기상해 4시 30분부터 새벽예불 및 108배에 동참하고 이후 아침 발우공양, 각 구역 청소, 상강례, 수업·습의, 후원운력, 사시 마지, 저녁예불, 경전필사, 좌선정진, 수행일기 작성 등 오후 9시 30분까지 쉼 없는 정진을 하게 된다.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이 진행되며 심신이 건강하고 출가학교 참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참가비는 성인 30만원, 고등학생·대학생 15만원이다.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사본과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가 필수다. 010-3686-7118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주관하는 제6기 봉녕사여성출가학교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7박 8일 동안 열린다.

‘참나를 찾는 요가선명상’을 주제로 한 이번 출가학교는 기본 일과로 예불과 독경, 발우공양, 운력이 진행된다. 심신이 건강하고 출가학교 참여 목적이 분명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17세~60세 여성으로 20명 선발 예정이다.

봉녕사 측은 “정식 출가에 앞서 출가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학생이나 봉녕사 심우불교대학 기본반 수료자는 10% 할인된다.

접수 시 주민등록 사본과 결핵 및 B형 간염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형을 필수 준비해야 한다.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봉녕사는 2027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제7기 여성출가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010-9897-4127

임은호 기자

사찰림도 전문관리 시대…컨설팅센터 본격 운영

4월 12일,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산림복지 등 7개 분야서 12명
원명 스님 “다양한 현안 풀겠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4월 12일 서울 봉은사 다래헌에서 ‘사찰림연구소 컨설팅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대표이사 원명 스님)가 기후위기와 산림재해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사찰림 컨설팅센터’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4월 12일 서울 봉은사 다래헌에서 ‘사찰림연구소 컨설팅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이 수행환경 유지와 생태환경 보전, 휴양·치유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내 ‘사찰림 컨설팅센터’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임기는 2026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4일까지 3년이다.

산림복지 분야에는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와 김종희 한국자연공원협회 부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살림재해 분야 자문위원에는 임주훈 해밀 산림생태입지연구소장,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장이 위촉됐다. 정규원 숲산사 산림기술사 사무소장과 임정호 임호 산림기술사 사무소장은 산림경영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사찰림 대상 조림, 숲가꾸기, 수확, 임산물 소득 관련 전반을 자문하게 된다. 법률 분야에는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전현선 (사)금산발전연구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밖에도 이학송 (사)생명의 숲 전문위원이 교육 분야를, 이선 전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가 전통조경 분야 자문을 맡았다. 생태복원 분야는 최송현·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대표이사 원명 스님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원력을 바탕으로 사찰림 내 각종 산림사업, 자연공원 내 전통문화유산 지구 관련 사업진행 등 다양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찰림연구소는 이번 컨설팅센터 운영을 통해 사찰림 관리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력 강화, 사찰림 보전·활용 모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관리 매뉴얼 개발과 포럼 운영, 연구사업 연계 등을 통해 사찰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세월호 12주기’ 진도 해상서 추모기도

사노위, 4월 15일 참사현장서
희생자 304명 극락왕생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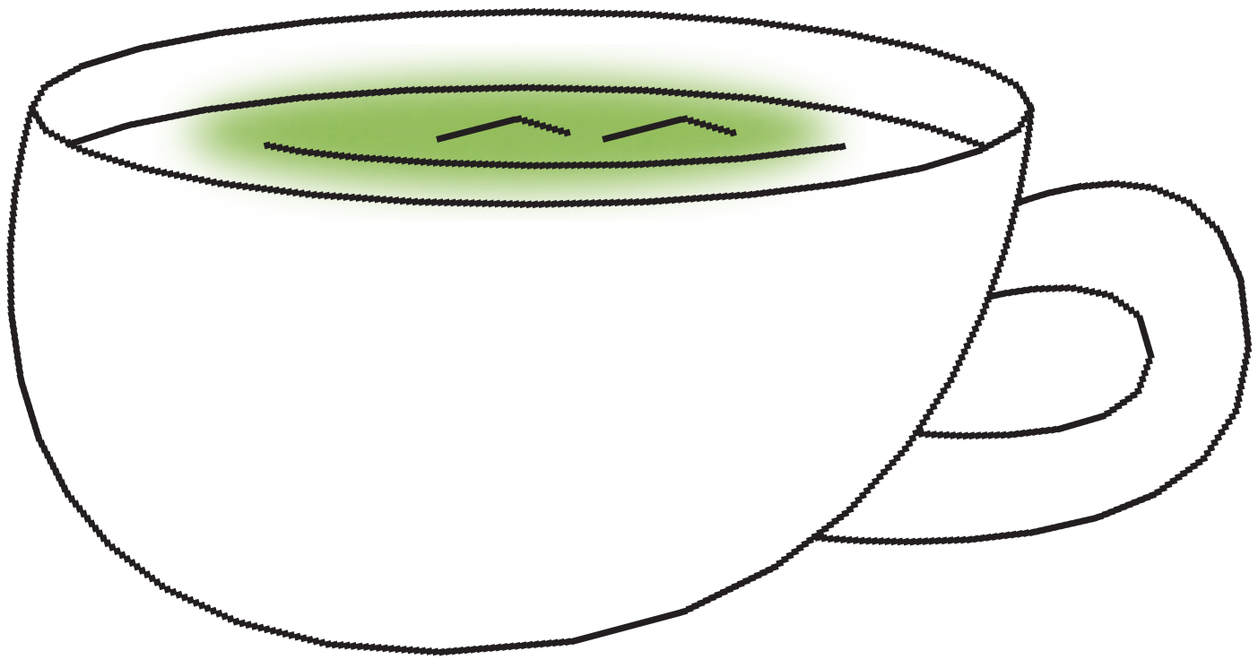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4월 15일 세월호 참사 현장 진도 해상에서 희생자 304명의 극락왕생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추모기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혜찬 스님을 비롯한 8명의 위원스님과 재가위원들, 고 조은화·허다윤 학생의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팽목항에서 1시간 가량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동참자들은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성게’를 독송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15일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해상에서 희생자 304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나무최초식재 1198주년 경상남도 자연유산지정 39주년 기념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SSANGYESA TEA CULTURE FESTIVAL
2026.5.7.
~2026.5.10.

雙磎寺

5월 7일 개원채다
5월 8일 다도의례 및 진감 초의 고산 다맥전수식
5월 9일 茶-디카시를 만나다 축하행사 및 시상식 축하공연 K파워
5월 10일 이주 가족들과 함께 하는 K-어울림 콘서트

실상사, '휴휴당 주련'으로 문자반야 세계

한글 주련 '그대가 나임을' 6폭 제작

전통 · 현대 결합한 문자미학 제시

문자반야 프로젝트 성과 집약된 불사

2028년 개산 1200주년…공간혁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남원 실상사(주지 운묵 스님)가 휴휴당 주련 봉안을 계기로 그간 이어온 '문자반야 프로젝트'의 성과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불사를 넘어 현대사회에 걸맞은 불교적 문자미학을 구축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상사는 4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휴당 주련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문자반야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주련은 실상사가 수년간 축적해 온 문자 실험의 집약체로 평가된다. 실상사는 그간 문자 자체를 수행과 깨달음의 매개로 삼아 사찰 현판과 주련, 안내문 등을 새롭게 구성해 왔다. 핵심은 전통을 답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의 감각과 언어로 불교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있다. 그동안 사찰 현판과 주련은 한문이 주를 이뤘고 이는 대중과의 거리감을 낳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상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글과 한자,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문자 형식을 모색하면서 선재집 현판, 휴휴당 편액 등을 선보여 왔다. 휴휴당 주련은 그 연장선에 있다.

형식은 매우 파격적이다. 기존 사찰 주련이 대부분 한자로 쓰인 것과 달리 전면 한글로 구성됐다.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언어'로서 기능하면서도 서체는 한자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재구성돼 전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실상사 휴휴당 주련. 오른쪽부터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안해 미안해, 이제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고마워 고마워'라는 도법 스님의 시구다. 한자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로 재구성, 전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4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국 문자반야프로젝트 추진위원, 실상사 주지 운묵 스님, 날개 안상수 타이포그래피 아티스트(왼쪽부터).

서예는 김종원 작가가 맡아 한자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을 재구성했다. 김종원 작가는 "훈민정음의 '자방고전' 원리를 오늘날 기계시대 미학에 맞게 재해석해 낸 것"이라며 "한글이 지닌 조형 가능성을 확장해 문자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각자는 김각한 각자장(국가무형유산 기능보유자)이 맡았다. 필획(筆劃) 의도를 극대화해내기 위해 음양각(陰陽刻) 기법을 구사, 한글전서의 기하학적인 구조에 극적으로 필획된 행초서의 '비백(飛白)'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6폭으로 구성된 주련의 글귀는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이 지은 시 '그대가 나임을'을 바탕으로 한다. 시는 타자와 자아의 분별을 넘어서는 불교적 연기사상을 드러낸다.

주련이 걸리는 '휴휴당'은 실상사의 템플스테이 공간이다. 2013년 건립 이후 편액과 주련 없이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편액에 이어 주련 불사를 통해 비로소 공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갖추게 됐다.

이동국 추진위원은 "주련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정신을 규정하는 요소"라며 "휴휴당 주련은 이곳이 '쉼'의 공간을 넘어 관계와 생명을 성찰하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휴휴당을 찾는 이들이 머무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체득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자와 건축, 수행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문자반야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로 문자 자체를 넘어 깨달음을 일깨우는 도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주지 운묵 스님은 "이번 주련 불사는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자 하는 진지한 모색이며 연기 가르침을 문화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이는 회주 도법 스님의 전통을 지키되 갇히지 않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열린 사유와 실천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상사는 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자반야프로젝트는 전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 흥선 스님, 날개 안상수 타이포그래피 아티스트, 이동국 전 경기도박물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외불교는 지금

인도네시아 청년불자 '마음챙김'으로 치유

4월 10일 자카르타서 청년 행사

범종교 '그랜드 마인드풀 커넥트'



참가자들이 발성을 위한 호흡을 배우고 있다. 사진 출처=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려 화제다. 4월 10일, 국제불교 전문매체는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범종교 청년 정신 건강 워크숍 '그랜드 마인드풀 커넥트'에 대해서 특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불자협회(YBAI)에서 주관하는 '그랜드 마인드풀 커넥트'는 인도네시아 불교 공동체와 현지 청년 불자단체들이 협력해 마련한 것이다.

5회차를 맞은 워크숍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커지는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현대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불교명상법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이 행사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청년세대들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발성 연습을 통해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과정을 넘어, 목소리를 내는 순간의 호흡과 진동에 집중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법을 익히는 불교적 알아차림의 연장선으로 기획됐다.

행사를 이끈 체실리아 판게스투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변형하거나 현대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명상법을 소개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YBAI 측은 발성을 마음챙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소리, 리듬, 의미를 이용하여 집중력과 마음챙김을 기르는 전통적인 염불수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워크숍 동안 참가자들은 호흡, 소리, 그리고 정신상태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도록 안내받았다. 워크숍을 진행한 불교크리에이터 엘만드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노래를 부를 때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목소리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더욱 세련되고 차분해진다"고 설명했다.

한 청소년 참가자는 "처음에는 명상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성을 위한 호흡을 배우면서 호흡법이 정말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라면서 "일상의 활동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최측은 워크숍이 종교 간 화합적 성격이 불교 공동체를 넘어 명상 수행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YBAI는 이러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D-31' 동국대는 연등 제작 중

불기 2570(2026)년 연등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국대가 커다란 연등공방으로 변했다. 교내 곳곳에 마련된 연등공방에서 19개 불교동아리 회원과 전법특임교수, 지도교수들은 연등회 연등행렬에 참여할 장엄등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사진은 다향관에 마련된 연등공방에서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 동아리 회원들이 백설공주 아기코끼리등을 만들고 있다.

글 · 사진=신중일 기자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우수상 박진영 씨

장려상에 이복희 씨 수상

4월 24일 시상 및 발표회



신진 불교학 연구자 발굴을 위한 제2회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우수상에 박진영 씨(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사진)가 장려상에 이복희 씨(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 수료)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논문 '백파는 외롭지 않았다-조선 후기 삼종선(三種禪)의 지지자들'로 우수상을 수상한 박진영 씨는 동국대 불교학부와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현재 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6기 대원청년불자상과 제8회 성운학술상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복희 씨는 논문 '선(禪)의 질문 정신-〈직지심체요절〉을 중심으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부산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선학과를 진학해 석·박사까지 마친 이복희 씨는 옥스퍼드 불교학센터에서 빨리어를 리처드 곰브리치 교수에게 배운 재원이다.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논문 발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일본인도 반한 'K-관음성지'

문화사업단 4월 15일 회향식

2차 73명 관음기도로 마무리

스도 씨 "인연의 소중함 느껴"



문화사업국장 일학 스님이 10년간 33관음성지를 순례한 일본인 스도 아키코 씨에게 회향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10년에 걸쳐 한국의 관음성지 33곳을 모두 순례한 일본인 순례자가 탄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15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6년 제2차 33관음성지 순례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에서는 총 73명이 회향해 37명이 회향식에 참석했다.

'33관음성지 순례'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하는 전통사찰 순례 책자 〈한국 33관음성지〉에 수록된 사찰 33곳을 방문해, 각 사찰의 인장을 모두 모으면 회향증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향식에서는 한국의 관음성지 33곳을 순례한 스도 아키코(須藤明子) 씨가 순례자 대표로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스도 씨는 10년 동안 31개 사찰을 혼자, 2개 사찰은 친구와 함께 찾았다. 택시나 차량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모든 사찰을 순례했다.

그는 "보리암을 참배할 때는 교통편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따뜻한 친절을 받을 때마다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2024년 4월 순례했던 고운사가 이듬해 산불로 전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이번 33관음성지 순례를 마치며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인연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산중 사찰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달력 공모전 금상에 장명확의 '인도'

은상에 혜득 스님 선정



제6회 불교 달력 사진 · 미술 작품 공모전 금상 수상작 장명확 씨의 '인도-쿠시나가르'.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장 성진 스님)가 주관한 '제6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장명확 씨의 '인도'가 금상으로 선정됐다.

㈜도반HC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장명확 씨의 사진 '인도'를 금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은상에는 혜득 스님의 그림 '내 마음속에 부처님 세상'과 최강일 씨의 사진 '풍경소리'가 이름을 올렸다. 동상은 진용 스님의 일러스트 '선명상', 박종권 씨의 사진 '연꽃'이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이상운 씨의 '천안각원사'를 포함한 7명이 입선작으로 뽑혔다.

금상 수상자 장명확 씨는 "석가모니의 탄생지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설법했던 곳, 그리고 열반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싶었다"고 출품 취지를 밝혔다.

은상 수상자인 혜득 스님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계절의 느낌을 바탕으로 자연과 동물, 불교 행사 일정을 함께 녹여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동상 수상자 진용 스님은 "'진이랑 용이랑' 동자승이 기도와 참선, 공양 등 일상 속에서 마음을 보고 공부하는 선명상의 내용을 그림에 담았다"면서 "간결한 선과 산뜻한 색감으로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전하고, 보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랐다"고 전했다.

공모전을 주관한 ㈜도반HC 사장 성진 스님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훌륭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총평하며 "2027년 불교 달력 역시 다양하게 구성해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중신회 '파크골프대회 시범 라운딩'

4월 11일 밀양파크골프장서

"지역사회와 좋은 결실 맺길"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신회)가 4월 11일 밀양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계종 총무원장배 전국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를 앞두고 시범라운딩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딩 행사는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점검과 함께 밀양시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정원주 중신회장, 중앙신도회 임원과 안병구 밀양시장 등 밀양시 관계자까지 약 4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총 10개 팀으로 나뉘어 36홀 라운딩을 진행했다.

라운딩에 앞서 진우 스님은 "앞으로 열릴 본행사에서도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주 회장은 "불교계와 지역사회의 교류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오는 10월 말, 밀양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계종 총무원장배 전국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조례안 발의에 서울시의회 조직적 토대 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시의회 의원 17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는 특별위원회 등 조직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다. 바티칸 교황청이 주관하는 세계청년대회는 개막미사·영성 아카데미·폐막미사 등 종교 의례가 핵심을 이루는 행사임에도,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을 위원장에,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 선임하며 총 10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불교계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협의를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아 초기부터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채수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위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갈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현기 위원장은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150여 개국 70만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라며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선 국제적 축제인 만큼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대회는 교황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교황청이 결정하게 돼 메인 행사장이 결정이 안 됐다" "서울대교구가 서울 행사 전체를 총괄한다" 등의 서울시 관계자 발언이 이어져 종교행사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대회 준비 전반을 총괄할 전담 조직(TF) 구성과 문화·관광·청년·교통·안전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았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불교계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종교 중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17명은 4월 6일, 가톨릭행사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예산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사진은 올해 3월 13일 열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캡쳐.

지난해 12월 31일, 특위 구성
2차 회의부터 숙소 본격 논의
"교육감도 대회 협력에 공감"
김현기 위원장 "특별법 없어도 서울시 예산 지원하면 된다"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자 서울시의회는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1월 15일 열린 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참가자 숙박·급식·위생·안전 대책 등 실무 준비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서울시는 시·자치구·교육청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통해 학교시설 활용과 급식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 지원 계획을 구체화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대규모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1200여 곳과 220여 개 성당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교육청에서도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도 빨리 확립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행사 준비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3월 1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칠성·박수빈·오금란·한신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활동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 이날 박칠성 의원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3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자치행정과, 교육청 교육재정과, 자치구 기획예산과 등이 참여하는 '숙박 TF'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인 사실이 보고됐다.

논의가 진전되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 사항도 드러났다. 문성호 위원은 "학교 개방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학부모와 운영위원회의 반대가 예상된다"며 "학교가 세계적인 대회를 도와줬다는 취지가 있으니, 운영비나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연주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해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대회 기간이 여름방학과 겹치는 점도 지적됐다. 이종태 위원은 "방학 중에도 초등 돌봄과 고등학생 자율학습 등이 운영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인근 학교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현기 위원장은 국회에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라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K-사찰음식' 매력 전하다

문화사업단, 주일한국문화원 'K-FOOD FESTA' 참여

4월 8~10일 일본 도쿄서
전시·시식·시연 등 진행

한국불교 식문화인 사찰음식의 매력과 가치가 일본에 전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8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K-FOOD FESTA'에 참여해 사찰음식의 가치와 매력을 현지에 선보였다"고 4월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23일까지 주일한국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동 주최한다.

'K-FOOD FESTA'는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를 △생애주기별 상차림 △사찰음식 △전통주 세 가지 주제로 소개하는 기획전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사찰음식 전시와 시식·시연 행사, 전통주 관련 프로그램 등이 함께 운영되며, 한국 식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일본 현지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화사업단이 선보인 '사찰음식' 전시관에서는 6인의 사찰음식 명장 스님의 대표 메뉴를 음식 모형으로 소개하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사계절 사찰음식 모형을 함께 전시해 사찰음식의 계절적 특징과 절제된 미학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전시관에서는 사경 체험과 만화 형식의 '웹툰 공양' 열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관람객들이 한국 불교문화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 전시에 그치지 않고 사찰음식에 담긴 생활문화와 철학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 장인 혜범 스님이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이 주최한 'K-FOOD FESTA'에서 사찰음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주일한국문화원

사찰음식 시연 및 시식행사는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주일한국문화원 2층 라운지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회차별 50명 규모로 운영됐으며, 총 100명이 참가했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행사에서 사찰음식 장인 혜범 스님이 직접 시연을 맡아 일본 현지 참가자들에게 사찰음식을 소개했다. 9일에는 연잎밥, 토마토 물김치, 제피장아찌를, 10일에는 사찰식 들기름 간장국수와 연근삼색전을 선보이며 시연과 시식 형태로 운영했다.

특히 이번 시연은 사찰음식이 단순한 채식이나 건강식이 아니라, 제철 식재료를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존중하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라는 점을 현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직접 보고 맛보며 사찰음식 특유의 담백한 맛과 조리 방식, 재료 본연의 풍미를 체험했다.

개막식에서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문화사업국장 일학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한 나라의 역사와 계절,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소중한 문화"라며 "사찰음식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절제와 지혜를 실천해 온 한국의 전통 식문화로, 생명을 존중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찰음식 시식 및 시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사찰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혜 주일한국문화원장은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 식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K-FOOD FESTA'는 사찰음식을 비롯한 한국 식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사찰음식 시연·시식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한국 식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도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현장 반응과 관련해 행사 관계자는 "일본 참가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전시장에서도 사경 체험과 문화사업단 제작 책자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일한국문화원 차원에서도 사찰음식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례가 드문 만큼, 한국의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전통과 자비의 빛, 부산 수놓는다

부처님오신날 맞아 5월 1~17일
송상현광장 · 부산시민공원 일원
부산무형유산 등재 염원 담아 봉행
전통등 보존 및 전승 가치 재조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2570부산연등회'가 오는 5월 화려한 막을 올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주최하는 부산연등회는 전통등(燈) 문화의 전승·보존과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부산무형유산 등재로 회향하기 위한 뜻깊은 장으로 마련된다. 행사는 크게 '부산연등문화제', 본 행사인 '부산연등회(연등행렬)',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나눠 풍성하게 진행된다.

17일간의 '빛의 향연' 무명을 밝히다

부산시민과 관람객들이 불교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인 '부산연등문화제'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송상현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점등식'은 5월 1일 오후 7시에 거행된다. 이날 점등식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대형 전통등 점등과 함께, 부산연등회만의 고유한 전통인 '호기놀이'와 간이 연등행렬이 재현돼 무형유산으로서의 독창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송상현광장을 장엄할 '전통등 전시'도 주요 볼거리다.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원등 달기 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꼬리표에 각자의 소망을 담아 등을 밝히는 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돼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불사로 회향된다.

부산 시내 수놓을 장엄한 연등행렬

봉축 행사의 백미인 '부산연등회(연등행렬)'는 5월 16일에 봉행된다. 이날 봉축연합대회가 열린 직후, 수만 개의 연등이 빚어내는 장엄한 '연등행렬'이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올해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을 출발해 하마정교차로와 양정교차로를 거쳐 종착지인 송상현광장까지 이어지는 약 2.2km 구간에서 진행된다.

무차만발공양과 느티떡 전승 등

주말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5월 9일과 10일에 열리는 '전통문화체험한마당'에서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불교 및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5월 10일에는 송상현광장을 찾은 관람객 3000명에게 비빔밥을 무료로 나누는 '무차만발공양'이 진행된다.

잊혀지는 고유의 세시풍속을 되살리기 위한 전승 활동도 주목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느티나무 새순을 따서 떡을 빚어 부처님께 공양 올리던 전통을 되살린 '느티떡 전승회'가 열린다. 이와 더불어 '전통등·지화 만들기 강습회'를 통해 우리 고유의 수공예 전통 제작 기법을 대중에게 전수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축제의 열기를 더할 '관람객 SNS 공모전'도 눈길을 끈다. 2570부산연등회 관련 행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 SNS에 업로드한 뒤,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지정된 번호(010-5920-0501)로 전송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수상작은 오는 6월 중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대상(1명) 태블릿 PC, 최우수상(1명) 에스프레소 머신, 우수상(1명) 고급 헤드폰, 참여상(20명)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푸짐한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비 실천 힘찬 발걸음" 삼광사 자원봉사단 발족

4월 11일 삼광사 약사전서 발대식
봉사자 70명, 주 1회 도시락 배달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유대감 형성



부산 삼광사는 4월 11일 약사전에서 '삼광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할 자원봉사단을 출범했다.

삼광사는 4월 11일 약사전에서 '삼광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불교의 핵심 덕목인 보시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눔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발대식은 자원봉사자 70여 명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법어 봉독, 위촉장 수여, 주지 스님 인사말, 축사, 발원문 낭독,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삼광사는 발대식을 계기로 '마음 든든 온기 나눔 도시락' 봉사활동을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 1회 사찰음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이웃의 삶을 살피는 수행의 장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주지 용암 스님은 "자원봉사단 출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혜와 복덕은 불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덕목으로, 따뜻한 말과 손길에서 실천이 시작된다"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비행으로 희망을 전하는 길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광사는 지난 2015년 8월 비영리법인 (사)나눔광장을 설립해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의료·법률 서비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 어르신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락 봉사는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활동을 재정비하며 추진된 핵심 사업이다. 봉사 대상자는 부산시 17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봉사단은 독거 어르신 37명을 대상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나눔광장과 연계해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봉사 실적 인증과 우수 봉사자 포상 제도 등 지속 가능한 참여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성파 대종사 "우주 전체가 불교미술…연구 지평 넓히길"

불교미술사학회 춘계학술대회
4월 11일 통도사 문수법당서
'석가모니불' 연구 성과 공유



불교미술사학회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석가모니불을 다층적으로 조명한 7편의 학제적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학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진응 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장)는 4월 11일 통도사 설법전 문수법당에서 '석가모니불 연구의 성과와 새로운 시선'을 주제로 제46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불교미술, 문헌학, 고고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동아시아 불교문화 속 형상화 양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석가모니불을 조명한 7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먼저 김용준(고려대)은 '갠지스대평원 고고학: 석가모니 시대와 8대 성지'를 주제로 석가모니의 출생지가 당시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에서 비켜나 있었던 전통적 사회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연구들이 도시와 불교의 관계에만 집중해 수평적 사회나 숲의 전통이 초기 불교에 미친 영향을 간과해 왔다"며 대도시 중심의 성과에만 의존하지 않는 비도시적 고고학 전통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빨리어본 자따까(Jātaka)에 나타나는 보디삿따(bodhisatta)의 정체성(최선혜, 동국대) △유물과 명문으로 살펴본 요제국의 석가모니불 인식(김연미, 이화여대) △중국 하북성 봉산사(峰山寺)의 불전벽화 연구(정하담, 원광대) △조선 후기 석가여래좌상의 정형화와 그 배경(조태건,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이날 성파 스님은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우주 전체의 '화장찰해(華藏刹海)' 자체가 곧 불교미술이며, 대자연의 장엄한 세계가 바로 훌륭한 그림"이라며 "불교미술을 단순히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가두지 말고, 대자연을 불교적 안목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 부산, '제18회 명상걷기대회' 개최

4월 25일, 어린이대공원 일대서
휠체어 전달식 · 장기기증 캠페인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시민이 함께 걷는 화합과 치유의 장이 마련된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 및 수변공원 일대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18회 생명나눔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명상걷기대회는 부산시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참된 의미와 동참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을 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생명초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 페이스페인팅, 무료건강 상담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행사장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생명나눔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후 2시 거행되는 개막식은 본부장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휠체어 전달식이 진행돼 행사의 훈훈함을 더한다. 이어 생명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불무도 명상 시연과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준비체조가 진행된 후,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와 수변공원 일대를 걷는 명상걷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대회는 부산시민과 생명나눔실천 본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접수자에 한해 선착순 400명에게는 소정의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 및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가능하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념장학회, 글로벌 인재 불사 '도약'

지역 학생 11명에 장학금
인도 국제승가대학도 후원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경순)가 1971년부터 이어온 불교 인재 양성의 원력을 바탕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장학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념장학회는 4월 14일 부산 묘광선원에서 '2026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하고 지역 대학생과 중학생 총 11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장학회는 지난 2월 인도 분황사 국제승가대학을 방문해 해외 학인들에게도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글로벌 인재 불사로 그 영역을 넓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인도 분황사 국제학교 학장 붓다빨라 스님, 부산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범어사 사회국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학생들의 앞날을 축원했다. 특히 안도 스님과 김윤환 회장 등이 장학 기금 모연에 동참하며 인재 불사에 힘을 보탰다.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한국과 인도의 스님들이 뜻을 모아 국제승가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한국불교를 세계로 확산하는 매우 뜻깊은 불사였다"며 학생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5월 7일 개막

5월 7~10일 쌍계사 일원서
다맥전수 · 다도 시연 등 다채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2026년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개최한다.

쌍계사는 신라 선종의 중심 도량이자 차문화의 성지로, 매년 봄 차문화의 역사성과 수행 정신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문화 대축전을 열고 있다.

행사는 5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된다. 8일에는 다도 시연과 함께 진감 선사 추모 다례재가 봉행되며, 고산 대선사 다맥전수식이 열려 한국 차맥의 전통 계승 의미를 더한다. 9일에는 '차(茶)·디카시를 만나다'를 주제로 문화 프로그램과 축하 행사, 시상식,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10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K-어울림 콘서트'가 열려 세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쌍계사는 "차는 수행과 일상을 잇는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차문화 대축전이 전통 차문화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향유하는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055-883-1901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무량암 주지에 창윤 스님 취임

4월 11일 무량사 주지 진산식
"수행 정진으로 정법 이을 것"



남해 무량암 주지 창윤 스님이 "누구나 편히 찾아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수행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4월 11일 무량암에서 열린 주지 진산식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무량암 회주 범신 스님, 주지 창윤 스님, 남해불교사암연합회장 승원 스님, 광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창윤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량을 일궈 온 회주 범신 스님과 문중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도량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수행과 정진을 바탕으로 전통을 잇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부지런히 불법을 공부하고 바르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찰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 도량"이라며 "정진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종정협 초대 대승주에 월인 대종사

4월 13일 양산 불광사서 추대식
15대 회장 청봉 스님 취임법회도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초대 대승주에 화산 월인 대종사가 추대됐다. 제15대 회장에는 정산 청봉 대종사가 취임했다. 종정협의회는 4월 13일 양산 불광사 대법당에서 '초대 대승주 화산 월인 대종사 추대식 및 제15대 회장 정산 청봉 대종사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초대 대승주에 추대된 월인 스님(대한불교승가종)은 법어를 통해 "창립 후 30년 동안 대덕 스님들의 원력으로 협의회가 이어져 왔다. 그 공덕과 법맥을 깊이 새기고 계승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앞으로 한국불교를 넘어 세계 불교사에 길이 남는 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설했다.

15대 회장에 취임한 청봉 스님(대원불교조계종)은 취임사를 통해 협의회의 전통 계승과 실천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협의회의 창립 정신을 계승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 땅에 불국토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총화종 "자비 실천 수행 종단으로"

4월 15일 창종 67주년 법회
혜각 스님 "정법 기둥 세울 것"
1회 총화인권상에 곽두준 회장

영동 실상사=유재상 충청지사장



대한불교총화종이 4월 15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설선당에서 '제67주년 창종 기념 대법회 및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이 창종 67주년을 맞아 정법 수호와 전법 도생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총화종은 4월 15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설선당에서 제67주년 창종 기념 대법회 및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무원장 혜각 스님과 종회의장 법만 스님, 선원장 지광 스님, 복지원장 조향 스님, 교육원장 본원 스님을 비롯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 안진삼 인권위 자문위원, 곽두준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장, 심천 국악기 장인, 유재업 카본플레이 대표, 정미숙 양강면장, 김재화 총화종 전국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법어에서 "창종 67주년은 중생의 마음속 자성불을 깨우고 정법의 기둥을 세우는 불사"라며 "종단의 길은 명예나 권위가 아니라 부처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나를 비우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고 설했다.

종회의장 법만 스님은 '미래 비전 선언'을 통해 "창종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수행 종단,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에 응답하는 자비 실천 종단, 디지털시대에 대응하는 포교 혁신 종단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67년의 동행을 바탕으로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시대 변화에 맞는 포교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축사에서 "총화종이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자비를 사회에 실천하는 첫 걸음으로 인권상을 제정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법이 일상이 되는 수행 종단,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 종단이라는 비전은 불교계 전체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총화종의 여정에 현대불교신문도 도반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미숙 양강면장은 "지역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 온 총화종에 감사드린다"며 "인권상 시상식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 대중은 교육원장 본원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차별의 벽을 허물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회의장 법만 스님과 교육원장 본원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에서는 곽두준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화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시정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곽두준 회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과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법 수호와 전법도생을 기치로 1960년 창종한 총화종은 2019년 영동 실상사를 총본산으로 종단 체계를 정비해 왔다.

총화종은 "창종 67주년을 계기로 자비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원 대종사 '오등회원' 강설 10년 대장정 입재

4월 11일 학림사 오등선원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강의


공주 학림사는 4월 11일 오등선원 설법전 3층에서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의 '오등회원 보설'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상에 오른 대원 스님.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의 '오등회원' 강설의 10년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공주 학림사(주지 경담 스님)는 4월 11일 오등선원 설법전 3층에서 대원 스님의 '오등회원 보설'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석은 선종사의 핵심 문헌인 '오등회원'을 대원 스님이 직접 강설하는 자리로, 매주 토요일 8시에 진행된다.

주지 경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오등회원'이라는 책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옛 도인들의 깨달음 이야기를 편안하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오늘 시작되는 이 법석이 끝까지 이어지는 정진의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등선원 선원장 보관 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 선(禪)이며, 그 선의 맥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등회원'"이라며 "이 책은 우리 자신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일깨우는 가르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문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홍익 학림사 신도회 수석총회장은 "오등회원은 선문의 정수를 담은 귀중한 법보"라며 "이번 강설이 수행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봉준 최성문 오등회장은 "오등회원 강설을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법석을 통해 수행의 길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도 오등회 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며 이 법석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법상에 오른 대원 스님은 "오등회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어진 법등"이라며 "문자를 좇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비추어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설했다. 이어 "이 법문이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학림사 회주 정암 진호 종사, 오등선원 선원장 보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황정아·진선미 국회의원, 오등시민선원 운영위원장 한복룡 교수, 조정연 충남대 교수불자회장, 오영달 전 충남대 교수불자회장 등 오등회원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공주 학림사=유재상 충청지사장

성준무산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4월 10일 속초시청서
대학생 장학금 3억원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설립한 성준무산장학재단이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이어가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성준무산장학재단(이사장 지혜 스님·신흥사 주지)은 4월 10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속초·고성·인제·양양 등 설악권 대학생 240명에게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복지재단 이사장 향성 스님, 화암사 주지 대현 스님, 신흥사 노전 서원 스님, 명주사 주지 각일 스님, 원각사 주지 설혜 스님, 건봉사 주지 설주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병선 속초시장, 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장,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장학금은 종교와 성적에 관계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혜 스님은 "성준·무산 두 큰스님의 가르침은 '종교는 달라도 사회는 한 가족'이라는 데 있다"며 "인재 양성에 어떠한 구분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이어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번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닌 응원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의 마음을 모아 깊이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이동격 강원지사장

광주 관음사, 충장중서 '분식 나눔'

4월 13일 자비신행회 함께
떡볶이·튀김 300인분 제공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 스님)가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자리를 마련했다.

관음사는 4월 13일 (사)자비신행회와 함께 광주 충장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분식 가게'를 열고 전교생과 교직원 300여 명에게 떡볶이와 튀김, 음료로 구성된 분식 세트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소운 스님과 관음사 자원봉사단,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참여해 직접 현장에서 조리와 배식을 통해 학생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충장중학교가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분리배출 캠페인을 병행했다. 다회용기를 활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운 스님은 "지금의 청소년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라며 "잠시라도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스스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는 먹거리 나눔과 환경 교육을 함께 실천한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다회용기 사용과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불교대학 38기 입학식

4월 11일, 화엄학림원 30기 입학식도



전북 지역 불교 인재 양성을 선도해 온 화엄불교대학(학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이 불교대학 제38기와 화엄학림원 제30기 입학식을 열고 54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4월 11일 전북불교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서는 불교대학 32명, 학림원 22명 등 54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학장 화평 스님은 입학 식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1989년 이사장이셨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설립됐다"며 "여러분은 오늘 그 깊은 역사와 원력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움에는 끝이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어떻게 이웃에게 되돌려줄 것인지 고민하는 회향"이라며 "열심히 정진해 자비로운 리더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입생 대표로 나선 홍광문 회장은 선서를 통해 성실한 수행과 정진을 다짐했다. 신입생들은 "전통 있는 화엄불교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스님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화사 청소년 지킴이 4기 출범

4월 10일 중학생 150명 동참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팔공산 생태계를 지키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는 '팔공산 청소년 지킴이 발대식'에 중학생 150명이 동참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화사는 4월 10일 통일기원대전에서 대구 지역 중학생 150여 명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4기 팔공산 청소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사진〉

참가자들은 앞으로 팔공산 일대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찰 문화 체험 △봉사활동 △명상 및 수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 정신을 체득하게 된다.

지도법사 동우 스님은 "팔공산을 지키는 일은 자연 보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수행의 과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건강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부주지 해관 스님은 "자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연에서 와서 머물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건강한 자연이 곧 우리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경산 제석사, 사라탑 낙성

원효 스님 1409주기 기념



경산 제석사(주지 혜능 스님)가 4월 11일 '사라탑(娑羅塔)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낙성은 원효 스님 탄신 1409주기를 기념해 추진된 조탑 불사의 결실이다.

원효 스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제석사는 옛 사라사(裟羅寺)로 불렸던 도량으로 '사라탑'이란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다. 혜능 스님은 2018년 14대 주지로 부임한 이후 '원효 성사 탄생지 성역화 불사'를 발원하고 조탑 불사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조성된 사라탑은 경주 덕동댐 수몰지역에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고선사삼층석탑을 참고해 제작됐다. 원탑의 절반 규모인 가로·세로 약 3m, 높이 약 5m 크기로 경주 남산석을 사용해 조성됐다.

주지 혜능 스님은 "천일기도와 원효로드 순례를 통해 모아진 원력이 오늘 사라탑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잘 배어나는 수행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종교 간의 모든 선을 넘어 많은 이들이 마음 수행을 하는 도량으로 가꿔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봉선복지재단·세스코, 업무협약

취약계층 방역 지원키로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이사장 호산 스님·이하 봉선복지재단)은 4월 9일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서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 복지기관들과 방역·방제 업체인 ㈜세스코와 '취약계층 방역·방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선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주축으로 구리·남양주시의 노인·장애인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봉선복지재단 운영위원장 법륜 스님은 이사장 호산 스님을 대신한 인사말에서 "각 기관과 기업, 재단의 역할이 모여 시너지를 발휘할 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어두움 없애려 말고 화두 등불 하나 켜세요”

4월 13일 혜국 스님 법문



금아 혜국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평생 간화선 수행에 매진해왔다. 1989년 제주도에 남국선원 무문관을 개원하고, 2003년 충주에 석종사 금봉선원을 창건해 스님들과 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2005년 전국선원수좌회 간화선 수행지침서 편찬위원장으로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했다.

이번 담선법회는 우리에게 발심을 도와주신 크나큰 스승 한 분 한 분을 의지해서 간화선과 같이 발심해 보고자 하는 법회입니다. 저에게는 성철 큰스님이라는 어른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타고 나기를 귀한 집에서 타고났고, 제가 모셔본 어른 중에서는 기억력이 가장 출중한 어른입니다. 머리가 워낙 명석하신 데다 동서고금의 책이란 책을 엄청나게 봤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봐왔는데, 서산 대사가 쓴 문집에 있는 ‘아유일권경(我有一卷經) 불인지묵성(不因紙墨成) 전개무일자(展開無一字)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 구절을 보고 무릎을 쳤다고 그래요. 그분은 스물다섯 전에 그런 글을 보고 크게 무릎을 치고 출가했는데, 저를 비롯해 우리는 왜 그러한 구절을 보고 생명을 못 바칠까요.

그 어른은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참 생명을 모르고 있는 동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길로 대원사로 가서 거사로서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했는지, 본인 말로 주위에서는 물론이고 정중일여(靜中一如)를 체험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을 안 놓치고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없어졌는가. 내 모든 분별심이 없어지고 ‘오직 모를 뿐’ 오직 화두 하나로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는 잘 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며 동정일여(動靜一如)가 되느냐. 움직이면서 남에게 욕을 듣고 말을 하면서 화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그 어른은 대원사에서 그걸 체험했다고 그래요.

아유일권경, 여러분들이나 나나 누구에게나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전개무일자, 아무 글자도 없습니다. 종이나 먹으로 인연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성(空性).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권의 경. 그걸로 듣고 말하는 건데요. 성철 큰스님은 그 한마디를 듣고 대원사로 갔죠. 우리도 언젠가는 내 마음의 경을 찾아서 ‘반드시 한번 출가 하리라.’ 이런 원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일들은 눈 감을 때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역대 영웅호걸, 절세미인들이 전부 다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온 거 알면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과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가져갈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권의 경전. 성철 큰스님이 해인사 백련암에 가서 출가시(詩)를 지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속으로 출가시 하나를 지어보길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그분을 참 많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매를 많이 맞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자다운 제자는 딱 맞고 나면 “스승님 고맙습니다”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먼저 났어요. 이게 공부의 차이였구나, 내 안에 이렇게 업이 많았구나. 그 노장님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만 되면 회초리를 챙겨 와서 두드려 주는 걸 왜 그렇게 고맙게 못 받아들였을까. 내 안에는 도를 찾는 마음보다 업이 더 많았구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땅에 태어나 부처님 제자가 되어 그 가운데서 참선법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오온(五蘊)이 개공(皆空)이라. 불생불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법당, 이 강의실을 옛날 스님들과 신도들이 지었어요. 왜 지었습니까? 앉아 있을 공간 때문에 지었지, 벽이나 지붕이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허공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허공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물어집니다. 이 집은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안 만들었으니까. ‘불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집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허공은 안 없어지니까. ‘불멸’이에요. 허공은 불생불멸입니다.

한평생 우리를 상대로 가르친 게 중도(中道)입니다. 내 몸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수백 번 배우는 ‘오온개공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색이라는 건 몸뿐이 아니고 모여진 것을 몸이라고 해요. 몸은 인과예요. 오온이란 인과대로 움직이는구나. 먹으면 살이 찌고, 안 먹으면 빠집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강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바다로 흘러가니, 실체가 없으니 공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은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각, 너라고 하는 생각, 밉다 곱다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생각과 감정을 텅 비워 마침내 빈 그릇이 된 것. 그걸 두고 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철 스님 출가 일화서 중도 깨달아
집은 무너져도 허공은 애당초 ‘불멸’
‘오온개공’은 생각·감정 비운 상태

이란·미국 전쟁도 욕망에서 비롯돼
욕망과 지혜가 둘이 아님을 모를 뿐
마음 다스려야 진정한 평화 다가와

내가 스물두세 살 때였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가 안될까. 5분도 안 돼서 어머니 생각, 옛날 내기에서 먹다 남은 자장면 생각,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 사람 생각. 그렇게 망상이 떠올라요. 연속극을 보거나 축구를 볼 때는 왜 망상이 안 들어올까요. 흙탕물을 계속 휘저으니까 찌꺼기가 안 보이죠. 기도나 참선을 하면 휘젓는 걸 딱 중단하니까 가라앉은 만큼 찌꺼기가 보이는 거예요. 망상이 들어오면 이건 바깥에 있다. 내 안에 망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도둑놈이 있구나. 이것을 화두로 바꾸고 이걸 부처님께 바치는 거구나. 내 안에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구나. 미워할 게 아니라 번뇌 망상을 사랑하는 법이 간화선 법이라는 겁니다.

한번은 성철 스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했어요. 참선은 안되고 졸리기는 어찌나 그렇게 졸리던지요. 이렇게 공부가 안될 바에는 석굴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오자고 그렇게 2.2㎞를 올라가서 울었어요. 그렇게 울기도 많이 울고 “물러나지 않겠다, 지켜봐 달라”고 발원했어요. 그러고 내려온 그때 성철 스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스님은 4년 만에 깨달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도가 안됩니까? 공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노장님이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아. 땅에서 넘어진 자가 어딜 짚고 일어나는가. 땅을 짚고 일어난다. 몸이 근질거리고 아프고 안되면 안된 데서 되도록 하고 일어나야지.” 지금도 이게 가슴에 확 남아 있어요. 안되면 안되는 그 자리에서 되도록 만들어 놓고 나가야 공부라는 게 된다. 안된다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니까 공부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대무심지(大無心地)가 돼야 합니다. 대무심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해서 걸어온 어지러운 발자국을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공부가 안된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게 다 어두움이에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공부 안되는 데서 공부가 잘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대답은 어두움은 없앨 수가 없다. 깜깜한 방을 걸레로 닦아내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내도 쓸어낼 수가 없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말은 번뇌 망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등불 하나만 켜버리라는 말이에요. 어둠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밝음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니까요. 번뇌 망상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게 번뇌 망상이니까요. 그러니 번뇌 망상과 싸울 게 아니라 그 번뇌 망상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지혜 등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려고 태어났거든요. 제발 마음공부 좀 하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인생 백 년 천 년 산답니까. 눈 딱 감을 때 아들도 딸도 집도 다 남이 될 때, 나는 누구인가 할 줄 아는 그놈. 그놈이 바로 지혜광명(智慧光明)입니다.

이 공부는 미세한 망상까지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모를 뿐인 게, 안다 모른다를 할 게 아니라 대무심지에 들어가서 중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거다’ 하면 이런 거라는 생각이 일어난 다음 거고. 화두는 깊은 잠 속에 꽉 들면 그냥 ‘이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화두 참선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 간화선을 듣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은 불교의 ‘불’ 자, 참선의 ‘참’ 자가 안 붙어도 좋다 그래요. 중생들만 행복하고 마음 닦으면 그게 바로 간화선입니다. 어둠을 없애지 말고 등불 하나 켜면 됩니다. 등불은 대무심지이고, 대무심지는 중도이며, 중도는 불생불멸입니다. 연속극 제발 좀 적게 보고요. 뷔페나 커피숍 좀 덜 다니고요. 커피숍에 앉아서도 ‘나를 끌고 다니는 여기 나는 누구인가’ 보고요.

100년 전에는 밥 굶지만 않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4~50년 전에는 민주화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하고 괴로워하니. 마음 다스리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미국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세요. 죄 없는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은 채로 찢겨 가는 저 죽음.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마음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동안 결코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욕망과 지혜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뿐인 화두가 돼서 등불 하나 켜면 그거야말로 세계 평화입니다.

정리=이현희 수습기자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70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병오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H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H 010-5323-0834	
부 산 지 사	이도경	H 010-5640-8883	
경 남 지 사	성낙두	H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H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동제	H 010-8642-7733	
대구경북지사	김선행	H 010-4152-4376	
충 청 지 사	유재상	H 010-8341-0560	
강 원 지 사	이동격	H 010-7339-868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목마를 때 물 찾듯 간절하게 참구하라”

4월 15일 무여 스님 법문



금곡 무여 스님은…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전국 선원에서 참선 수행했으며 칠불사 선원장, 망월사 선원장,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봉화 문수산 축서사를 중창하고 문수선원을 개원해 대중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오늘은 담선대법회 3일째로, 오대산 도인으로 존경받았던 방한암 대종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1876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비범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금강산 장안사의 행름 선사를 은사로 출가해 조선 왕조의 멸망, 일제강점기, 해방 정국, 6·25 전쟁 발발 등 암울했던 난세에 남다른 불굴의 수행을 하여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방의 선지식으로 조선불교 교정에 추대됐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세 차례나 역임한 한국불교의 얼굴이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대종사님께 “마음을 닦으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화두선을 해라. 최고의, 최상승의 수행법이니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행법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행법 중에 최상승법은 화두 수행법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바른 수행법이 화두 참선입니다.

한암 대종사님은 발심한 지 1년 만에 깨치셨습니다. 발심하여 제대로 참구하면 그렇게 빠르게, 쉽게도 깨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말법세상일수록 삿된 법에 빠지지 말고 최고의 법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께는 “참선하는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밝히고자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인 줄 알아서 철저히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발심자는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믿고 진정으로 믿어서 아주 철저하게 발심해야 합니다. 발심이란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준말로, 보리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보리란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즉 무상등정각(無上正等覺)을 말합니다. 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암 대종사께서는 24살 때 보조국사가 쓴 〈수심결〉의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소신연비의 고행을 하고 모든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오히려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진정으로 발심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화두를 드는 방법은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하는데 절묘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성심성의껏 일깨우면 누구나 의심이 일어납니다. 너무 급하게 들면 의심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면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파 뜯듯이 하라’고 하셨어요. 화두 참구도 아주 적당하게 알맞게 하라는 말입니다.

참선하다 보면 수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한 의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결국은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한 의심으로, 참으로 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 선사 말씀에 화두 공부는 간절(懇切) ‘절’ 자, 한 자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화두하는 데는 여러 말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간절하게,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생각하듯이,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간절하고 간절하게 생각해서 일체의 헤아림도 없고, 깨달아서 아는 것도 놓아버리고 즉 한 치의 풀, 한 개의 티끌이라도 일체 직분의 망상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감정과 지식을 다 끊고, 또 특별히 성스럽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성성역력하게 밀밀면면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공부인은 수행하다 보면 경계에 따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기기하고 명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화두의 의심만이 아주 성성역력하게, 아주 또렷또렷하고 분명하게 들어가고 아주 밀밀면면하게, 즉 차근차근하게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화두 참구법으로 수행해서 24살 때 1차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어 25살에 양산 통도사 백운암에서 또 깨닫고요. 세 번째는 28세 때 합천 해인사 퇴설당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37살 때 평안북도 맹산 우두암에서 깨우쳤다고 합니다. 한 해 여름에 범어사

‘한암 스님’ 주제로 ‘화두참구법’ 강조
“암탉이 알 품듯 절실하게 정진하라”
화두 공부는 오직 간절함에서 나와

삶과 죽음 경계 없이 ‘여여’하길 강조
“면밀하고 빈틈없는 공부” 당부하며
하루 5분 선명상은 수행의 ‘첫걸음’

선원에서 하안거하는 수좌 스님이 맹산 우두암에 아주 어떤 수좌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두암에 도착하니까 신발 한 켤레 달랑 놓여있었어요. 문을 슬그머니 열어보니까 한암 스님께서 면벽하고는 앉아 계셨대요. 선정에 든 거에요. 수좌는 한암 스님 뒤편에 앉아 같이 정진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스님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3일간 한 방에 있었는데, 한 번도 일어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스님한테 한 수 배우고, 자기도 정진하겠다는 대단한 마음을 먹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스님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흘만에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한암 스님이 유명한 수좌로 제방에 알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스님은 선지식으로 대중 지도를 했습니다. 29세에 양산 통도사 내원암 조실, 46세에 금강산 금봉사 조실을 역임하셨습니다. 48세에 이곳 서울 봉은사에서 조실로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는 게송을 남기고 오대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후 27년간이나 오대산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59세에 조선불교 7인의 교정에, 60세에 선종의 종정으로 추대됐습니다. 66세 때 대한불교조계종이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후에는 초대 종정, 이대 종정을 지내셨습니다.

선사께서 이런저런 선행과 덕행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1923년 봉은사 조실로 계실 때 서울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당시 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됐답니다. 그때 스님께서 주지 청오 스님에게 “한 사람 구하는 데 쌀 한 가마를 주겠다”고 해서 무려 708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일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고 선행과 덕행을 해야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1951년 일사후퇴 직후에 국군 작전 지역에 있는 오대산에는 사찰을 포함한 시설물을 소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국군 장교가 상원사에 들이닥치자 스님께서는 법당 불상 앞에 정좌해서 “나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불을 지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장교가 사찰 문짝만 뜯어 태우고 떠났습니다. 상원사는 죽음 앞에서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한암 선사의 기개와 국군 장교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지금까지도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암 대종사께서는 1951년 3월 22일, 음력 2월 보름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 좌복에 정좌하고 반듯하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여(如如)라”는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즉 진리란 깨달음의 진리, 열반하신 순간의 진리, 지금 돌아가신 순간의 견처(見處). 그 경계와 죽음을 맞이하는 경계가 여여하다, 즉 한결같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24살 때 깨달은 그 견처가 70년을 지난 그때까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깨달았을 때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오묘한, 바로 그 경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누구나 꿈꾸고 희망하는 세계, 일체 괴로움이 없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그 세계. 그 세계를 흔히 극락세계, 정토세계라고 합니다. 그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여한 그 상태로, 깨달았을 때나 가실 때나 견처가 꼭 같은 상태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여 그 자체를요.

여러분께 지금까지 들려드린 한암 스님의 수행법, 거룩하고 훌륭한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시면서 수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암 스님은 암울했던 말법시대에 활짝 핀, 한 떨기의 우담바라 같은 존재였습니다.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 공부인은 이 참구법을 잘 정리해 매일 몇 번씩 읽으세요. 삼배하면서 읽고 읽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읽는 것만큼 신심이 나고,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발심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던 화두도 어느 사이에 여여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공부, 마음수행은 반드시 화두선으로 하세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러 가지 수행법을 하시더라도, 그 수행법의 묘미를 느낄 정도가 되거든 꼭 화두로 갈아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두선은 최상승법이고 최고의 법입니다. 발심하기에 따라서 가장 빠른 수행법이 화두 수행법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면 좋겠지만, 하루에 네 끼, 다섯 끼 안 먹어요. 크게 잘 산다고 해도 오십보백보에요. 보통으로 살고 예사롭게 살되, 수행법은, 즉 열반의 길은 최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얼른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몇 생 내지 수십 생을 빨리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총무원장 스님께서 5분 수행법을 말하는데 사실 궁여지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라도 인연을 맺어서 장차 큰 도인이 되고 수행인이 되고 일생을 풍미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되라는 첫걸음이 5분 명상법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화두로 갈아타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이 길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진력하세요. 위없는 보리도(菩提道)를 구하고자 한다면, 화두 일구(一句)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정리=박지운 수습기자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5~4/2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번뇌없는 지혜 적이없는 자비(108자재)	성엄	하늘북
2	미국 스님 한국 표류기	현안	모과나무
3	살다 막힐 때 한줄 해결사전(원오극근 스님의 원오심외)	동은	조계종출판사
4	마음닦는 요긴한 편지글(원오극근 스님의 원오심외)	원오극근 /벽해원택	장경각
5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성엄,대성	탐구사
6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독송과 다라니기도를 위한)	상욱,현안	위앙북스
7	참선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박산무이 스님의 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8	나무아미타불	야나기 무네요시	조계종출판사
9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대원불교문화총서13)	벤자민데커 /이혜진	운주사
10	AWAKENING(깨달음내눈뜨기)	VEN.POMNYUN SUNIM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차와 클래식의 공명, 포시즌	이상철	차와문화
3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4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5	한글 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6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운주사
7	동종요법 가이드북	유이 토라코	햇무리
8	정토삼부경	청화 역	광륜출판사
9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10	그림으로 만나는 차 이야기	이경남 글,그림	차와문화

마음 돌보는 세 가지 길

최근 명상 열풍에 힘입어 관련 책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과잉 정보와 경쟁,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비로소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있는 징후로 읽히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세 권의 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명상'의 세계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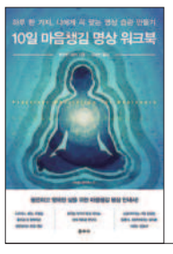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은 호기심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짧고 반복 가능한 명상법을 소개한다. 〈지금, 아이와 시작하는 통합명상〉은 아이들의 삶과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 놀이와 감각, 신체 활동을 결합한 명상법을 보여준다. 〈명상하는 마음〉은 성취와 증명의 압박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고요의 경험'을 전한다.

책이 주목하는 독자는 다르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된다. 명상은 누구나,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명상은 조용히 앉아 눈을 감는 정적인 수행만은 아니다. 사진은 남양주 봉선사가 지난 2월 21일 광릉숲에서 진행한 묵언 걷기 명상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벤자민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
운주사
1만5800원

열흘 만에 내게 맞는 명상법 찾기

일상에서 완성하는 명상 습관

'내면 보는 연습'이 수행의 시작

명상은 더 이상 낯선 수행법이 아니다. 그러나 익숙함과 실천은 다른 문제다. 명상 안내서와 강의가 넘쳐나지만, 실제 일상 수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은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 보고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저자는 불교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의 수행법을 폭넓게 연구하고 실천해 온 명상 지도자로, 독자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명상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구성은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이다. 첫째 날 호흡 알아차림 명상을 시작으로 열린 알아차림, 마음챙김 관찰 명상, 먹기 명상, 감정 관찰, 걷기 명상, 바디스캔, 만트라 명상, 힘든 감정과 함께 앉기, 자애 명상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수행법이 제시된다. 각 장은 명상의 의미와 효과, 준비물, 구체적인 방법, 심화 단계, 그리고 기록으로 구성돼 있다. 명상하며 느낌을 표현하는 '기록' 항목은 자신의 체험을 성찰로 확장하는 장치다.

저자는 특정 종교 전통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그 근간에 흐르는 수행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한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권의 명상 전통을 아우르되, 그것을 현대인의 일상에 맞게 재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최근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명상이 뇌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며,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하루 10분 내외의 짧은 수행은 바쁜 현대인의 생활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다. 수행은 길고 어렵게 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짧고 반복 가능한 실천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강조한다. 10일간의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고, 이를 일상 속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게 돕는다.

짧지만 집중적인 10일의 여정은 평생 이어질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 마음을 돌이켜보고, 자기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수행일지 모른다.



지금, 아이와 시작하는 통합명상
장효산 · 조현숙 · 윤선주 지음 / 이한희 그림
어깨 위 망원경
2만9000원

아이 마음을 키우는 3분 명상

놀이 · 수행 결합 '통합명상'

부모 · 교사 위한 명상 길잡이

쉼 없는 자극에 노출된 건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폰 속 영상과 빽빽한 학원 시간표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다.

〈지금, 아이와 시작하는 통합명상〉은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명상으로 아이의 불안을 차분함으로, 산만함을 집중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접근 방식은 기존의 명상서와 다르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는 정적인 수행이 아니라, 몸과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형 통합명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싱잉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움직임을 느끼고, 만다라를 그리며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은 아이들이 명상을 '지루한 훈련'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으로 느끼게 만든다.

30여 년간 참선 수행과 지도를 이어온 장효산, 테라피 요가 전문가 조현숙, 키즈 요가 지도자 윤선주 씨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명상을 제시한다.

책은 먼저 아이들에게 왜 명상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스트레스와 주의력, 감각 자각, 정서 지능의 중요성을 짚는다. 이어 부모와 교사를 위한 명상의 기본 이해를 제공한 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주의 집중 명상, 감각 자각 명상, 정서 지능 명상, 요가 명상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는 '통합명상'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눈에 띄는 점은 '정서 지능 명상'의 비중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대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경험을 통해 아이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또 수업 전 5분, 잠들기 전 3분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읽어줄 수 있는 대본과 지도 방법을 제공한다. 명상 경험이 없는 부모나 교사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은 이 책의 강점이다.

아이들에게 명상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를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책에서 제시하는 공감 명상이나 감정 표현 명상은 이러한 관계적 성장을 돕는다.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아이는 타인의 감정에도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게 되고, 이는 곧 공동체적 감수성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요가와 결합된 명상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함께 다룬다. 호흡과 움직임, 이완을 통해 신체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의 기반이 된다.

아이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어른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집중하라"는 말 대신 "함께 숨 쉬어 보자"고 말하는 순간, 교육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명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이며 그 과정에서 아이와 어른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



명상하는 마음
이치훈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1만7800원

노랫말로 건네는 명상의 언어

음악과 수행이 만난 '고요의 기록'

애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배우다

명상은 때로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로 소비된다. 〈명상하는 마음〉은 명상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임을 일깨운다.

저자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제곡 '어른' 등으로 널리 알려진 작사가다. 그는 마음 깊은 곳을 응시하고, 떠오르는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머물러 바라보고, 그 고요한 관찰을 노랫말에 담아 왔다.

책은 이러한 자신의 내면 작업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낸 기록이다. 특히 '어른'의 가사를 써 내려가던 순간이 인상적이다. 더 이상 쥐어짜 낼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문장이 흘러나왔다. 애쓰던 마음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열리는 어떤 세계. 저자는 그 경험을 통해 '놓아버림'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명상이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개인적 경험을 통해 풀어낸다. 2장에서는 호흡과 감각, 감정 알아차림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명상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게 된 관계와 삶에 대한 통찰을 전한다.

무엇보다 '명상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깨달음이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 일부러 시간을 내 좌정해야만 명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몰입하는 순간, 길을 걷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찰나, 혹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밤까지도 모두 하나의 명상적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태도다.

이 책은 음악과 명상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시도를 보여준다. 저자가 직접 녹음한 명상 가이드와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독자는 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고요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불교는 과연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고문,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공생해 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현장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정교한 학술적 시도!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신국판/376쪽/값 2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세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현대과학을 통해 본 공과 중도!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해 '공'과 '중도'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참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성구 지음/신국판/328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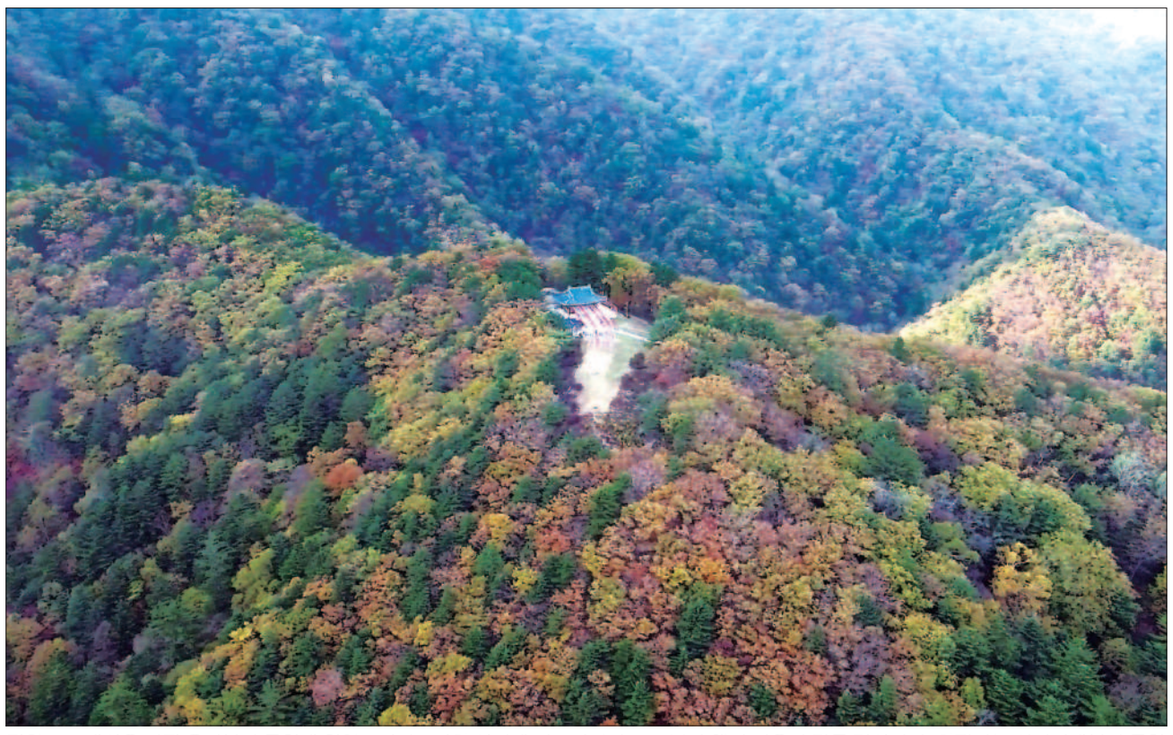
오대산에 서린 수행 정신 집대성



자장 율사
김형중 지음 / 민족사 / 1만6500원

범일 국사
조민기 지음 / 민족사 / 1만6500원

나옹 선사
이정범 지음 / 민족사 / 1만6500원



강원도 오대산은 자장 율사부터 근현대 한암 · 탄허 · 만화 선사에 이르기까지 1400년 수행의 기운이 깃든 명산이다. 월정사는 신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오대산의 수행 전통을 정리하는 '오대산의 고승' 총서를 발간한다. 사진은 오대산 적멸보궁. 사진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월정사 '오대산의 고승' 총서 10권
고승 8인 가르침…1차분 3권 출간
정념 스님 "전환 시대 필요한 지혜"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오대산에 깃든 1400년 수행 정신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기획한 '오대산의 고승' 총서가 1차분 3권을 선보이며 한국불교사의 새로운 서술 방식을 제시했다.

이번 총서는 오대산과 인연을 맺은 고승 8인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통사와 자료집을 포함한 총 10권으로 기획됐다. 1차로 〈자장 율사〉 〈범일 국사〉 〈나옹 선사〉 3권이 출간됐고 내년 상반기 완간될 예정이다.

총서는 정념 스님의 구상에서 시작됐다. 스님은 "오대산은 과거에 머문 산이 아니라 지금도 4개 선원에서 100여 명의 선승들이 치열하게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공간"이라며 "고승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고, 그 정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작업을 "오대산이라는 정신 공간의 계보를 세우는 작업"으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기획 의도를 충실히 드러내기 위해 집필 방식부터 획기적으로 바꿨다. 기존 고승 전기가 학술적 평전이나 논문 형식이었다면, 이번 총서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서사형 전기'라는 형식을 택했다. 철저한 사료 고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사적 상상력을 더해 인물을 입체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독자가 고승의 삶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자장 율사〉를 집필한 김형중 작가는 "쉽고 재미있되 소설은 아니고, 평전이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글을 요구받았다"며 "모델이 없는 작업이었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장 율사를 '신라불교의 설계자'로 재조명하며 기존 인식의 확장을 시도했다.

〈범일 국사〉의 저자 조민기 작가는 현장 답사를 통해 스님의 흔적을 추적하고, 기록의 공백은 절제된 상상력으로 보완했다. 그는 "스님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상력을 발휘해 그려낸 스님의 탄생 장면을 눈여겨봐 달라"고 말했다.

〈나옹 선사〉를 쓴 이정범 작가는 역사와 서사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집필에 임했다. 그는 "나옹 선사가 오대산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지만, 중요한 정신적 전환의 시기로 보고 서사를 구성했다"며 "기록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일정 부분 서사적 상상력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승들의 삶과 가르침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장 율사는 계율을 세워 교단의 기틀을 다졌고, 나옹 선사는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졌으며, 사명 대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몸을 던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의 혼란을 외면하지 않고 실천적 지성으로 응답했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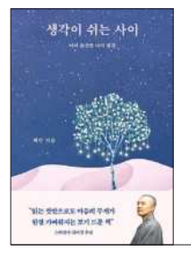
총 10권으로 기획된 '오대산의 고승' 시리즈의 1차분 3권이 출간을 알리는 기자간담회가 4월 14일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범 작가, 윤창화 민족사 대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형중 작가, 조민기 작가.

정념 스님은 "오대산의 1400년 수행 전통을 이어온 고승들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실천적 지성으로서 민중과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다"며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선각들의 지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판을 맡은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이번 총서는 오대산이라는 공간을 중심축으로 신라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진 수행의 흐름을 하나의 계보로 조망하는 작업"이라며 "흩어진 인물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공간과 법맥의 연속성을 함께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오대산의 고승' 총서는 1차분 3권을 시작으로 〈신미 대사〉(백승권) 〈사명 대사〉(김인숙) 〈한암 선사〉(성재헌) 〈탄허 선사〉(강민숙) 〈만화 선사〉(이용범)을 비롯해 오대산의 역사를 통사로 정리한 〈오대산 불교 문화와 역사〉(이용범)와 관련 연구 자료집 〈오대산의 역사와 기록〉(이진선·김수진·이유진·전효진)이 차례로 출간될 예정이다.

"해석에서 벗어나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생각이 쉬는 사이
혜민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9800원



혜민 스님이 8년만의 신작 〈생각이 쉬는 사이〉를 출간하고 4월 13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혜민 스님(고담선원 주지)이 8년 만에 신작 〈생각이 쉬는 사이〉로 독자들과 다시 만난다. '힐링 멘토'로 대중적 사랑을 받았던 스님은 2020년 사찰 등록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자 강연과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몇 해의 시간을 건너 세상에 내놓은 이 책에는 한층 깊어진 성찰이 담겼다. 스님 스스로도 "다른 이들의 사정을 더 헤아리게 됐고, 이론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책의 핵심은 '괴로움은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 통찰이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인생을 망친 듯하고, 팀장에게 보낸 메일에 답이 없으면 밤새 불안하고, 건강검사 결과지에 적힌 '추가 검사 권유' 문구에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타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러나 혜민 스님은 문제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 있다고 진단한다.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는 상황 그 자체보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두려움이 덧씌워진 해석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혜민 스님 8년 만의 신작
"고통 근원은 상황 아닌 해석"

스님은 이를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로 정의하며, 단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마음의 날씨'이며, 생각 또한 붙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강조한다.

또 하나 주목할 메시지는 '애쓰지 말라'는 역설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스님은 오히려 그 '애씀'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깨달음은 무엇을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멈추고 내려놓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때의 멈춤은 무기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깨어 있음'이다.

이러한 '깨어 있음'은 이웃을 위한 자비로 확장된다. 스님은 사단법인 다나를 통해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음식 나눔과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봉사한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곧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매주 200명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며 안부를 묻고 평화를 기원한다.

실천의 바탕에는 18세부터 이어온 〈법화경〉 수행이 있다. 고담선원에서는 10년 넘게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온라인 기도와 독송을 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매달 한 차례 오프라인 법회를 열고 있다. 스님은 "〈법화경〉은 마음의 근본 자리, 더럽혀질 수 없는 부처의 본성을 밝히고 나아가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경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은 "마음이 괴로울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괴로움이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생각에 빠져 있어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괴로움에 잠 못 이루거나 열심히 수행해도 진척이 없어 답답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책의 인세는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음식 나눔에 전액 기부된다.

여수령 기자

한국불교계 대표 석학 중각 이중표 교수의 '니까야로 읽는 대승경전' 시리즈 ❸

초기경전 『니까야』로 대승 논서 『대승기신론』의 핵심을 꿰뚫다!

"중생은 고장 난 생명 시스템이다"

초기경전 『니까야』와 현대의 일반시스템이론을 토대로 새롭게 읽는 『대승기신론』

중각 이중표 지음 | 464쪽 33,000원



니까야로 읽는 대승기신론

이중표 역해 464쪽 3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결집의 역사, 성전의 탄생을 밝히다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들 속 결집의 서사를 걷어내고 재검증한 불교 경전의 성립 과정

"경전은 어떻게 결집되었고, 이 사실을 전하는 자료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출가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학 연구에만 매진해 온 한국불교계 대표 학승(學僧) 호진 스님의 15년 연구 성과

호진 지음 | 496쪽 35,000원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학교 내 苦 줄이자”…불교교육協 출범

4월 10일 서울서 창립총회
국내 18개 학술단체 참여해
초대회장 박병기 교수 선임
학술대회, 교사연수 등 계획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분야 국내 주요 18개 학술단체들이 4월 10일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초대 회장에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선임됐다. 사진 제공=한국불교교육협의회

공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불교교육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연합체가 출범했다.

한국불교교육협의회는 “4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불교 분야 국내 주요 18개 학술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국불교교육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불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주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한국불교교육협의회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불교교육의 주요 현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에는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성철사상연구원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정각사학술원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사)국제명상상담학회 △(사)한국불교학회 △(사)화엄선연구소 △(사)세계불학원 세계불학연구소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윤리철학교육학회 △태고불교문화학회 △한국선학회 △한국밀교학회 △보조사상연구원이 참여한다.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 후보로 추대된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윤리철학학회장)가 참석 회원 단체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 선임됐으며 수석부회장에는 장환영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장, 사무국장에는 김희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 부소장이 선출됐다.

박병기 초대 회장은 “현재 학교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고통 속에 있다”면서 “고통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이야기하는 게 불교다. 학교에 만연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교육협의회는 우리 공교육의 장(場)인 학교에 만연한 고통을 불교적 관점에서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해소책을 마련하고, 교육 전반의 문제를 아우르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전했다.

향후 한국불교교육협의회는 학술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교교육 직무연수프로그램과 학교교육의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불교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병기 회장은 “한국불교교육협의회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불교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학술 및 종교,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교와 사회를 잇는 불교교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로 만나는 ‘7일의 왕비’ 단경왕후

회암사지박물관 ‘단단’展
거창신씨대종회 협력으로
전시 통해 왕후 삶 재조명


양주시립회암사지 특별전 ‘단단’에 전시되는 보물 〈온릉봉릉도감의궤〉.

중종의 부인 단경왕후 신 씨는 조선시대 왕비 중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지닌 비운의 왕비다. 중종이 즉위 전 처음 혼인한 정실부인로 매우 현명한 아내였다고 전해진다. 남편 중종과의 부부관계도 매우 좋았으나 중종반정 이후 생이별을 하게 된다.

단경왕후가 폐비가 된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유였다. 고모가 연산군의 정비인 폐비 신 씨였고 아버지 신수근이 폐주 연산군의 처남이어서 역적이 됐기 때문에 반정세력의 요구에 따라 단 7일 만에 폐출당하게 된다.

현명했던 아내와 강제 이혼하게 된 중종은 마음 속으로는 신 씨를 매우 그리워했고, 신 씨가 폐출돼 나와 있던 사가 방향을 자주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신 씨는 중종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빨간 치마를 인왕산 바위에 걸어놓았다. 이 내용은 야사로서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이 되어 전해진다.

신 씨는 ‘폐비 신 씨’로 불리다가 사후 200년이 지난 영조 때에 복위돼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받게 됐고, 양주 장흥에 있던 신 씨의 무덤도 온릉(溫陵)으로 정식 승격됐다.

이처럼 짧았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갔던 왕비 단경왕후의 삶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는 “4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특별전 ‘단短단端-짧았으나 올발랐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에서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1506년 중종반정이라는 격변 속에서 맞이한 운명의 전환을 조명한다.

이어 폐비 이후 50여 년을 묵묵히 견뎌낸 고독한 삶을 통해 비운으로 기억돼 온 삶 이면의 선택과 결단을 살펴본다.

단경왕후의 후손인 ‘거창신씨대종회’와의 협력으로 준비된 이번 전시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가지정유산 보물인 〈온릉봉릉도감의궤〉, ‘고금동충’ 현액, 〈온릉지〉 등이 전시된다.

온릉을 형상화한 영상 연출을 통해 전시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홍미영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짧은 시간[短] 왕비의 자리에 머물렀으나 묵묵히 바른[端] 삶을 지켜내어 마침내 ‘단경(端敬)’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기억될 한 여인의 삶을 담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짧음’ 너머에 존재하는 ‘단단한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언어가 개인과 역사를 왜곡시킨다

㊳ 명언종자(名言種子)

名言種子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 밖으로 흩어지는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에 자취를 남긴다. 불교 유식학은 이를 ‘명언종자’라 부른다. 이름과 말은 씨앗이 되어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고[種子], 적절한 계기를 만나 의지와 행위로 드러난다[現行].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지만, 실은 이미 심어진 언어의 씨앗으로 세계를 해석할 뿐이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 했다. 인간은 언어 속에서 세계를 이해한다. 그러나 그 집은 동시에 시야를 규정하는 틀이기도 하다. 이 통찰은 명언종자의 사유와 깊이 맞닿는다. 유식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가 어떻게 고통과 왜곡을 낳는지를 개인과 사회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한다.

언어의 왜곡은 이미 개인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구조화되어 내면화된 말은 역사 속에서 참혹한 폭력과 살상을 낳아왔다. 몇 개의 단어와 문장만으로도 의식은 오염되고 확장된다. 명언종자는 이 과정을 설명한다. 특정 개념을 담은 말이 의식 깊이 저장되었다가, 상황에 따라 자신과 세계를 향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극단적 사례가 아돌프 히틀러의 선동이다. 그는 ‘아리아인’, ‘순혈’, ‘열등 민족’이라는 언어를 반복해 대중의 무의식에 심었다. 특히 유대인을 ‘사람’이 아닌 ‘해충’이나 ‘바이러스’로 지칭함으로써, “해충은 제거해야 한다”라는 왜곡된 논리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만들었다. 이 언어들은 집단적 명언종자가 되어, 끝내 생명의 존엄을 지워버렸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중국의 홍위병의 광기 또한 다르지 않다.

이 문제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이름 속에 갇혀 있다. 이 말들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구도로 환원하고, 이해보다 규정을 앞세운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이름을 보며, 생각을 듣지 않고 진영을 본다. 언어는 빠르게 판단을 낳고, 그 판단은 갈등을 키운다.

이처럼 명언종자는 개인의 의식을 넘어 사회와 역사를 움직인다. 문제는 이 과정을 대중이 지나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어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믿는다.

그렇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타인의 말을 깊이 숙고하여 분별하고, 걸러내어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이치에 맞고 진실하며 다정한 말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의 한 마디가 의식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며, 역사를 만든다. 언어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낳는 근원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동아시아 밀교사상 면면 살핀다

한국밀교학회, 춘계학술대회
4월 30일 총지종 총지사서

한국밀교학회(회장 정법 정사)는 밀교의례사업단,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총지종 총지사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병욱 중앙승가대 강사는 ‘일행의 대일경에 관한 관점-주심품을 중심으로’를, 손신영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은 ‘사찰의 육자진언’을 발표한다.

김영민 국민대 강사는 ‘신라 중기 밀교 전래 문제와 수용 양상’을, 김수연 이화여대 교수는 ‘고려시대 다라니신앙과 정토신앙의 결합 양상과 의미’를 살핀다.

강향숙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조선시대 의례문헌 밀교개간집을 통해본 조선밀교의 일단(一端)’을,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은 ‘밀교의 일본 전래와 전개-공해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한다.

신중일 기자

걷는 순간이
끈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고통 넘어 포기 없는 수행 이끌어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⑧ 기복신앙과 회향·축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고통·한계 봉착 시 부처님 의지 당연해
기복신앙, 1700년 한국불교 지탱 힘 돼

불보살님 가피, 위기에도 수행 지속케 해
회향과 축원은 포기 없는 수행 돕는 방법

반야 참회 회향, 참회 공덕→소원 성취 힘
축원, 회향 공덕으로 부처님께 비는 절차

◉ 기복신앙에 대하여

회향과 축원 설명에 앞서 기복신앙(祈福信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가끔 보면 복을 비는 기복신앙을 비불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있는데, 이는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들은 사성제·팔정도의 수행으로 열반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재가자들이 삼보에 귀의하여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가르치셨다.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죽은 뒤의 삶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는 보시와 지계를 실천하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천상에서 누리는 정도의 많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것이 불교적 기복신앙의 원초적 형태다.

부처님 열반 후 500년경에 출현했던 대승불교는 중생 제도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 결과 대승불교에서는 믿음에 의지하는 기복신앙이 이타행을 중심으로 하는 보살행과 함께 본격적인 수행 체계에 포함됐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그 단적인 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중생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방편적 차원에서 기복신앙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복신앙으로 시작하더라도 불교를 좀 더 깊이 알고 자업자득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복신앙을 탈피하게 되는 것이 불교의 신행 체계다. 따라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거나 한계에 봉착했을 때 부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불자의 자세다.

뿐만 아니라 복을 비는 신행이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불교의 대중성을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불교 도입 이후 지금까지 1700년 동안 불교가 끊어지지 않고 전해져 온 것은, 심오한 사상이나 수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는 해도, 부처님께 아들딸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등의 기복신앙이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임을 잊으면 안 된다.

참회 수행자에게도 기복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위기를 겪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보살님의 보호나 가피를 요청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기복신앙은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다 보면, 수행이 진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수행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반야 참회에는 입문자나 재가자들이 현실에서 어려운 경우를 당해도 수행을 포기하지 않게끔 기도 순서에 소원을 비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그 방법은 회향과 축원이다.

• 회향(廻向)

회향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교리로서, 자신이 쌓은 선업이나 수행의 공덕을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다른 형태의 과보나 타인을 위한 공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자업자득'과 '인과응보'의 원리만 있었고 회향은 없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중생 제도를 위해 회향의 원리가 생겨났다. 즉, 보살행을 하면서 쌓은 공덕의 과보를 자신이 받아서 누리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에게 돌려주려는 자비심이 회향이라는 원리를 탄생시킨 배경이다. 그러므로 회향은 초기 불교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한 보충이다.

회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쌓은 공덕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는 하지만 애초에 쌓은 공덕과는 종류가 다른 형태의 과보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쌓은 공덕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전자의 예는 자신이 금전으로 보시를 했는데 그 과보로 병이 낫거나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경우다.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라면 금전을 보시했으니 재물이 늘어나야 하는데, 재물과는 다른 종류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다. 후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절에서 49재를 지내는 경우로서, 자기의 금전 보시가 부모님의 극락왕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따라 반야 참회의 회향은 참회를 통해 공덕을 쌓은 다음 그 공덕을 소원 성취를 위한 힘으로 돌리는 것이다. 물론 참회 없이 빌기만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소원이 성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회 후에 회향하는 것은 그냥 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공덕이 크다. 왜냐하면 공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공덕인데, 참회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회향은 특히 〈화엄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행이다. 〈화엄경〉에서는 성불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쌓은 공덕을 일체중생을 위해 회향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야 참회에서는 그보다는 낮은 단계의 회향법으로, 참회를 통해 공덕을 쌓되 그 공덕이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힘이 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공덕을 일체중생을 위해 회향하려면 수행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입문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수준으로 회향을 하더라도 수행을 계속하면 점차 일체중생을 위한 회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

참회한 공덕을 회향하는 방법은 아래의 발원문 중에서 "오늘 참회한 모든 공덕을 회향하오니 이 공덕으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라고 하는 것처럼, 회향과 축원을 동시에 하면 된다.

아래의 발원문은 불자들이 반야 참회를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 축원

축원(祝願)이란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회향한 참회 공덕으로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간절하게 비는 절차를 말한다. 사찰에서는 대개 불공이나 예불 후에 스님들이 부처님께 신도들을 위해 축원을 올린다. 그러나 집에서 참회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이 직접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면 된다.

축원은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위의 발원문을 읽어도 된다. 자기의 구체적인 소원을 빌 때는 그 내용을 위의 발원문에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라는 구절에 포함시키면 된다.

예를 들면 "이 공덕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저의 자녀 ○○○가 무사히 귀국하게 해 주소서"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

발원문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곳 없고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영원하시며, 일체지와 무량 공덕을 갖추시고 고해의 중생을 인도하시는 대자비의 부처님!

불자 ○○○는 지난날 쌓아 온 악업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바른 행동과 바른말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굳게 맹세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참회한 모든 공덕을 회향하오니 이 공덕으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저의 길을 밝혀 주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일체중생이 모두 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75호 | 14 | 전면광고

많이 외운다고 이익될 것 없으니 잘 외운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한 구절만 알고 도를 깨우침만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밑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수익
- 시세 70억 매가 : 45억
- 위치 : 경남 사찰
- 부지 : 20000평
- 대웅전 70평 외 전각 다수
- 산 밑 버스진입 및 주차
- 급매가 : 20억

주차가, 매수완료 시 수익1000~1300만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가포동
- 임야 2000평, 주방 2, 요사체 2, 실내화장실 2, 각각 20평씩
- 약사여래좌상, 5층석탑1개
- 시내8분거리 / 노스님 몸이 아픔
- 사찰 아래 아파트 단지 조성중
- 자연석굴 산신당
- 금액 : 1억6천 (가격 절충)

010-4192-03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08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1층은 세를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에서 20분
- 총면적 840평 대웅전 21평(목조), 산신각5.5평 요사채 31평(황토벽돌)
- 야외 화장실, 공양간
- 가격 : 6억5천

010-2333-3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병원10분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요사채3동, 정남
- 2차선 버스정류장에서 100m
- 가액 : 3억, 조정 무

010-9388-021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동대로 43(호계동) 3층 상가건물 3층
- 148.5㎡ 방3, 보 2,000만
- 월 90만
- 시물권 없음, 법당시설완료
- 포교지로 철학관 무속인 적합

010-9110-3301

토 굴 안 내

- 대지 : 약 2천평
- 법당1개 산소자리 명당
- 6m 약사여래불 5층 탑 2개/3존불 모셔져 있음(용궁전)/석불 대형 산신불 1개/요사채 2동(소 우사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급매매(스님 연세)
- 충남서천군 문산면 판문로 378번길 48의 47호 약수암

010-3922-777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지내동 (지내역 5분거리) 활천중학교옆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4억 9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창원시 경계지역)
- 규모 : 토지 350평
- 사용면적 : 약1,000평 법당. 종각. 삼성각. 요사채. 공양실 스님 몸만 오시면됩니다
- 법당 법구일체 냉장고.세탁기등 모두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2억5천만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전철역 바로 앞(최고의 위치)
- 보증금, 시설비 3500만원/ 월세 77만원 (저렴한 월세)
- 법당 : 20평(주거시설 완비, 거주가능)
- 삼존불, 에어컨, 냉장고, 도시가스 보일러 시설(거주하기 너무 좋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90-44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목동사거리 시장 옆
- 방 있는 사무실 20평
- 살림 겸 사업할 분 적합

- 국내 국제 결혼할 분

010-5381-1419

사 찰 안 내

땅 값만 받습니다.
매매시 지방문화재 1점 기증

- 위치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124-5, 황룡사
- 총 1197평 / 대지 1080평 종교 · 도로부지 117평
- 대웅전 43평 삼성각 2평, 용왕각 3평, 진신사리3층석탑
- 요사채 1층 38평 외 공양간 30평 2층 25평, 주차공간 넉넉
- 태양광 6kW, CCTV 완비
- 창고, 정자, 저온창고, 우물, 녹차밭, 야외화장실
- 가격10억(2억5천 융자 포함) 조정가능

010-5002-7392

농원(급)안내

- 위치 : 김천 보건대 앞
- 부지 : 864평
- 7년생 140주(자두)
- 작업실 10평
- 가액 3억 8천
- 특징 : 대로변 정사각형 부지

010-8560-9317

토 굴 급 매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배밭골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6500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청학동 주위 해발700고지 청학동 15분거리
- 명당자리(풍수지리)/ 공양간(수각) -자연공간으로 계곡물 사용(신선하고 넓음)
- 주위에 계곡 및 실내에서 본 전망 정말 좋음
- 종교용지 427평(임야90평)
- 법당20평, 요사체80평, 거실20평, 황토방7개. 공양간(수각), 요사체 위 법당있음(종교용지)
- 주차 20대가능
- 금액: 상담후 결정



010-5204-0050

좋은인연 대출안내

- [x]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x]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x]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75호 | 15 | 전면광고

도에 가까우면 이름이 드러나서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에서 멀면 지혜에 어두워서 밤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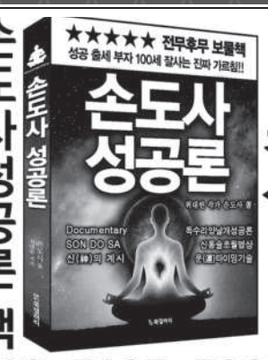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010-5105-50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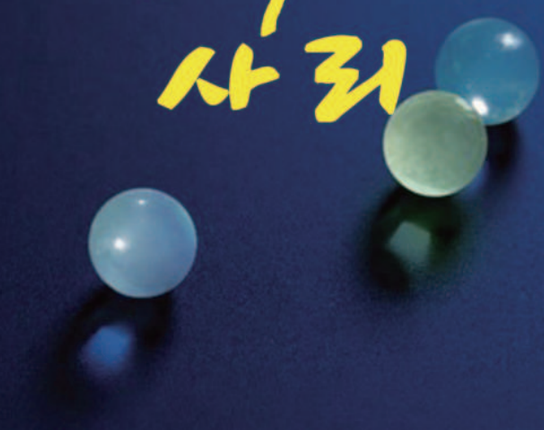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마음 방향, AI 기술의 업보를 가르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⑧ 팔란티어 AI, 수정구를 들여다보는 두 개의 시선

세상을 꿰뚫어 보는 돌, 전장을 꿰뚫는 눈

'팔란티어(Palantír)'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먼 곳을 꿰뚫어 보는 마법의 수정구였다. 그 수정구는 단순한 관찰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욕망이 개입될 때 현실 자체를 재구성하는 위험한 매개체이기도 했다. 이 신비로운 돌에는 함정이 있었다. 들여다보는 자의 의도에 따라 진실을 비추기도 했지만, 어둠의 군주 사우론은 같은 돌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공포와 왜곡된 환상을 심어 넣었다. 결국 팔란티어는 보는 자의 지혜를 넓히는 창이 아니라, 보는 자의 영혼을 잠식하는 기만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AI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3월, 미 국방부는 팔란티어의 AI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을 실험 단계에서 정식 군사 프로그램으로 격상시켰다. 수 시간이 걸리던 표적 식별에서 결심·타격까지의 과정, 이른바 킬체인을 단 몇 분으로 압축하는 이 시스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균열이 생겼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핵심 AI 엔진으로 사용해 온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 모델이 문제의 중심에 선 것이다.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앤트로픽의 윤리 정책이 '자율 무기화'를 추진하는 미 정부의 군사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와 앤트로픽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팔란티어는 졸지에 자사 군사 플랫폼의 핵심 두뇌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혼란에 빠졌다. AI 안전을 주장하는 기업과 AI를 전쟁의 도구로 확장하려는 국가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편리한 가면을 쓸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결코 무색무취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AI 안전을 고수하려는 기업과 이를 전쟁의 병기로 확장하려는 국가 사이에서, 기술은 더 이상 '중립'이라는 편리한 가면 뒤로 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리콘밸리 내부에서조차 "우리는 단순한 코딩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사를 가르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자성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질문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그 '의도'를 향해야 한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그 가능성을 누구의 손에 쥐여줄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적(緣起的)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이다. 현대판 팔란티어라는 수정구를 통해 전장의 적은 낱낱이 꿰뚫어 보게 됐지만, 정작 그 도구를 든 자기 손목에 감긴 업(業)의 쇠사슬은 보지 못하는 비극.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눈부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장의 칼에서 병원의 약방문으로

그런데 같은 팔란티어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 미국 탬파 종합병원은 2024년부터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도입해 환자 병상 배치, 간호 인력 배정, 퇴원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전장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던 위협 예측 알고리즘이, 병원에서는 패혈증 조기 징후를 포착하고 실시간 알람을 울리며 의사에게 즉시 연결하는 생명 구호 시스템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 **AI 기술 성능 아닌 '의도' 살펴야 할 시대**
> **팔란티어 AI, 킬체인→의료 시스템 활용**
> **연기법 통해 기술 겨누는 현실 직시해야**
> **분별심 위 세운 기술, 고통 총량 못 줄여**
> **공존하는 극단 뛰어넘는 중도 되새겨야**

포브스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비롯해 미국 주요 의료 시스템에 빠르게 침투하며, 전 세계 의료 데이터의 97%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뒤집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수 시간이 걸리던 킬체인을 몇 분으로 줄이던 그 파괴적 기술이, 환자 대기 시간과 재원 기간을 극적으로 단축하는 데 쓰이고 있는 셈이다.

같은 플랫폼 철학, 같은 데이터 처리 구조가 한쪽에서는 폭탄의 목표물을 지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쓰인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다르지만, 세계를 데이터로 환원하고 그로부터 결정을 가속하는 근본 설계는 동일하다. 기술의 뼈대는 하나인데, 그것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이 대목에서 어떤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기술 자체에 선악이 없다면,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이 병원 앞에 놓이는가, 전장 앞에 놓이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발동시키는 의도의 방향이다. 그 의도가 살생과 착취를 향한다면 불선업(不善業)이요, 고통의 완화와 생명의 보호를 향한다면 비로소 정업(正業)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팔란티어라는 수정구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문제는 그 구슬이 무엇을 비추느냐가 아니라, 구슬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무엇을 보려 하느냐에 있다.
AI Grok 생성 이미지

연기의 칼날 위에서

불교의 연기(緣起) 관점에서 보면, 어떤 존재도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 팔란티어의 AI는 독립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을 설계한 엔지니어의 의도, 훈련에 사용된 군사 데이터, 계약을 승인한 관료의 판단, 전쟁을 결정한 정치 지도자의 선택, 그리고 그 기술에 투자하며 주가 상승을 기대한 수많은 투자자의 욕망까지, 이 모든 조건이 얽혀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팔란티어의 논리는 연기적 세계관에서 보면 하나의 조건만을 떼어내 거기에 모든 무게를 실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아함경(中阿含經)〉 '전유경(箭喩經)'에는 붓다가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펼치는 대목이 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에게 급한 것은 화살을 뽑는 일이지, 누가 쏘았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흔히 "형이상학적 논쟁을 멈추라"는 뜻으로만 읽히지만, 오늘의 맥락에서는 다르게 읽힐 수 있다. AI라는 화살이 이미 세계 곳곳에 꽂혀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화살을 뽑는 일, 곧 기술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일이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이 2026년 2월 이후 이란에 대한 미군 작전에서 표적 선정에 활용됐다는 보도는 그 화살이 이미 누군가의 몸에 박혀 있음을 알려준다. 동시에 탬파 병원에서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기술이 화살을 뽑는 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의도(cetanā)를 수반한 행위의 연쇄다. 기술을 만드는 행위, 배치하는 행위, 사용하는 행위, 묵인하는 행위 모두가 업의 흐름 안에 있다. 우리 편과 저쪽을 가르는 분별심 위에 세워진 기술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고통의 총량을 줄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AI 기술에 중도(中道)란 있을 수 있는가. 붓다가 말한 중도는 쾌락과 고행 사이의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양극단에 매이지 않는 깨어 있는 실천이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담론은 두 극단 사이를 오간다. 한쪽에서는 "AI는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종말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술 만능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팔란티어 사태는 이 두 극단이 하나의 기업, 하나의 플랫폼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은 전장에서 생명을 빼앗는 칼이면서,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약이다. 스위스군은 2024년 12월 데이터 주권 상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기밀 유출 가능성, 외국 기업에 대한 장기 종속 위험을 지적하며 팔란티어 도입을 거부했다. 반면 영국은 2023년 말, 국민보건서비스(NHS) 연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팔란티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술,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국가의 의도와 분별력의 문제다.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이 병원 앞에 놓이는가, 전장 앞에 놓이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발동시키는 의도의 방향이다. 그 의도가 살생과 착취를 향한다면 불선업(不善業)이요, 고통의 완화와 생명의 보호를 향한다면 비로소 정업(正業)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팔란티어라는 수정구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문제는 그 구슬이 무엇을 비추느냐가 아니라, 구슬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무엇을 보려 하느냐에 있다. 전장의 표적을 찾으려는 눈으로 볼 것인가, 병상의 환자를 살피려는 눈으로 볼 것인가. AI라는 거울 앞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수신에서 호법신으로 거듭나

〈水神〉 〈護法神〉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⑧ 동양의 드래곤, 응룡(應龍)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의 응룡 부조상(조선 17세기).



김천 직지사 대웅전 사찰벽화 중 동자를 태운 응룡(조선 후기).

용(龍)은 동양문화 속 최고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예로부터 황제와 군주를 용에 비유했으며 농경사회에서는 비를 내려주는 수신(水神)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수호하는 호법신(護法神)으로 등장한다. 용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몸의 빛깔에 따라 청룡(靑龍)과 황룡(黃龍), 발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 삼조룡(三爪龍)과 오조룡(五爪龍) 등 그 구성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용 가운데 날개가 달린 용이 확인된다. 박쥐 혹은 새 같은 두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은 마치 서양 중세문화의 산물인 드래곤(Dragon)을 연상케 한다. 이 용의 이름은 응룡(應龍) 혹은 비룡(飛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응룡은 어떤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을까? '사찰 속 숨은 친구 찾기'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비를 내리는 수신

위에서 언급했듯 용은 물을 다스리는 수신으로 알려져 있다. 수신의 면모를 지닌 용을 우리는 용왕(龍王)이라고 부르며, 그 시작은 인도 불교의 뱀신 나가(Nāga)가 중국으로 전해져 정립된 〈법화경(法華經)〉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법화경〉에는 총 8명의 용왕이 등장하는데, 그 구성은 난타(難陀)·발난타(跋難陀)·사가라(娑伽羅)·화수길(和修吉)·덕차가(德叉迦)·아나파달다(阿那婆達多)·마나사(摩那斯)·우발라(優鉢羅)로, 백천의 권속(眷屬)들과 함께하며 부처님을 찬양하고 땅이 메마르지 않도록 비를 내려주는 존재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용왕 역시 이와 같은 〈법화경〉의 용왕의 영향을 받았고, 각종 민담에 등장하는 용왕 역시 동일한 사례다.

이렇듯 수신 역할을 하는 용은 불교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 전래 이전부터 동양에는 물을 다루는 용이 등장하며 이것이 바로 응룡이다. 응룡이 기록된 가장 이른 사례는 〈산해경(山海經)〉으로 알려져 있다. 〈산해경〉은 중국 상고시대에 편찬됐다고 전해지는 지리 백과사전으로, 중국을 비롯해 주변의 다양한 민족과 풍습,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상상 속 생명체까지 기록돼 있다. 여기서 응룡은 중국 전설 속 군주 삼황오제(三皇五帝)인 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 에피소드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우(蚩尤)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응룡에게 기주지야(冀州之野)에서 그를 공격하게 했다. 이에 응룡은 물을 모았는데, 치우가 풍백(風伯)과 우사(雨師)에게 폭풍우로 거침없이 쏟아지게 했다. 그러자 황제가 천녀(天女) 발(魃)을 내려보내 비가 그치게 하였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

기록에 보이듯 응룡은 전쟁의 신 치우와 대립관계인 황제 헌원씨의 협력자로 등장하며 물을 다루는 능력을 이용해 치우를 공격했다. 물론, 응룡의 공격에 치우는 더욱 큰 상대인 풍백과 우사로 반격하여 그 기세가 밀리긴 했지만, 응룡이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후, 사람들은 가뭄이 올 때마다 응룡의 형상을 만들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고 한다. 이 역시 〈산해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황(大荒) 동북쪽 모퉁이에 흉려토구(凶犁土丘)라는 산이 있다. 응룡이 그 남쪽 끝에 사는데 치우와 과보(夸父)를 죽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에 하계에는 자주 가뭄이 들었는데 이때 응룡의 모습을 만들면 큰비가 내렸다."

이와 함께 "응룡이 치우를 죽인 후에, 또 과보를 죽였다. 그리하여 남방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남방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이다"라는 기록과 "오늘날의 토룡(土龍)은 응룡을 본뜬 것이다"라는 주석 역시 응룡이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어쩌면 동양문화 속 최초의 기우제 대상이 응룡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 전래 이전부터 이미 비를 다루는 응룡이 존재했으며, 응룡은 용으로 번역된 인도 뱀신 나가와 함께 비를 내려주는 수신 용왕으로 변모한다.

승천을 위한 힘찬 날갯짓

인도 불교의 나가가 코브라(Cobra)에서 출발했듯이 응룡 역시 중국 본토에 자리 잡고 있던 뱀과 악어 등 물과 관련된 파충류를 모티프로 탄생했다. 그렇다면 응룡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산해경〉 삽화 속 응룡은 긴 몸을 지닌 동양 용의 외형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처음 언급했듯 두 개의 날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산해경 도설 응룡.

불교 전래 이전 〈산해경〉서 응룡 등장
응룡과 인도 나가, 수신 용왕으로 변모
조선 후기 사전 유통 결과 불교미술에도
활짝 편 날개, 동자 태운 모습으로 표현

이와 같은 〈산해경〉의 응룡 도상은 점차 정립됐고, 시간이 흘러도 일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일본미술의 응룡은 용머리를 지닌 조류로 표현되긴 하지만 여기서도 날개가 달린 도상적 특징은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응룡은 어떤 이유로 날개를 지닌 것일까? 다들 알다시피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다. 날개 없이도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는 영험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응룡이 날개를 지닌 이유는 현재까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산해경〉에도 응룡이 물을 다루는 능력만 기록돼 있을 뿐, 자세한 외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바로 승천이다. 〈산해경〉에서 응룡은 치우와 과보 등 막강한 힘을 지닌 신들과 전투를 벌였고 이에 따라 많은 체력을 소진했다. 이에 자신의 기본 능력인 물을 다루는 일은 가능했지만, 하늘로 승천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응룡은 전투 이후 승천하지 않고 땅에 머무르며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줬고 기우제의 대상이자 수신으로 지내게 됐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응룡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선, 감사함을 느꼈을 것임은 당연하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응룡의 상황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비를 내려주지 않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천할 수 있을 것인데 체력을 소모하면서까지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룡을 날개 달린 모습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 우리들을 위해 고생했으니, 이제는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승천하라고 말이다. 물론, 이는 필자의 생각일 뿐 아직 학계에서 응룡 도상의 연원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상력을 지니고 많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 또한 마침내 알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사찰에 자리 잡은 응룡

산해경에 등장한 응룡은 〈삼재도회(三才圖會)〉와 〈훈몽도휘(訓蒙圖彙)〉 등 다른 백과사전류에도 실리게 됐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 표현됐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 후기 무렵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전류들이 유통됐는데 이 시기와 우리 미술에 응룡이 등장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 가운데 응룡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역시 불교미술이다. 용은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기에 거리낌 없이 응룡 도상을 사용했을 것이고 불교계 역시 다양한 사전류의 기록과 삽화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영천 은해사 백흥암과 경산 환성사, 대구 파계사 수미단(須彌壇)에는 화려한 장엄 문양이 부조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날개를 활짝 펼친 응룡이 확인된다. 이는 수미단이 불국토(佛國土)를 상징하는 만큼 상서롭고 기이한 동물들이 불국토에 노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함께 김천 직지사, 공주 마곡사 사찰벽화에도 응룡을 찾아볼 수 있는데 동자(童子)를 태운 기룡도(騎龍圖)로 표현된다. 이는 응룡이 불교의 동자를 태우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존 응룡 도상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미술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다. 이처럼 우리 불교미술의 응룡은 물을 다루는 수신이자 호법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마치며

서양문화 속 드래곤 도상이 정립된 시기는 대략 10세기 정도, 즉 중세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스신화 속 괴물과 뱀을 악마로 인식한 기독교의 사례가 긴 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드래곤으로 통일된 것이다. 이에 반해 동양의 응룡은 아득히 먼 전국시대에 처음 기록됐고 현재까지도 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양의 드래곤은 사악하고 흉포한 빌런이지만 우리 응룡은 비를 내려주는 수신으로,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 역할을 하기에 그 성격까지도 드래곤과는 정반대이다. 겉모습이 유사하다고 해서 의미까지 같은 건 아니다. 응룡만 봐도 알 수 있다. 날씨가 포근해진 요즘, 우리를 위해 헌신한 응룡을 만나러 사찰로 가보는 건 어떨까?



김용덕 작가



귀천은 세상 아닌 내가 정하는 것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㉛ '은애하는 도적님아' (2026)



'은애하는 도적님아' 는 여성 홍길동 은조와 도월 대군 이열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로,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얼녀와 왕족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깨닫고 신분 귀천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1500년대 말에 활동했던 허균이 지은 소설 〈홍길동전〉은 정승 홍문과 몸종 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홍길동이 차별 가득한 조선에서 의적 활동을 하며 민심을 모아 만민이 평등한 율도국을 세우는 이야기다. 홍길동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장면인데, 어머니가 천민인 탓에 신분이 서자(庶子)도 아닌 얼자(孼子)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양인 신분이기만 했어도 홍길동은 당당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은애하는 도적님아'는 여성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다. 혜민서 의녀 홍은조(배우 남지현)는 대사간 출신 홍민직(배우 김석훈)과 몸종 춘섬(배우 서영희) 사이에 태어난 얼녀(蘗女)다. 그럼에도 둘만 있을 때는 아버지라 부르게 할 정도로 은조를 아끼는 홍민직은 청백리 대장에 이름을 올릴 만큼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의 인물. 왕에게 직언을 올리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충격으로 쓰러져서 3년 동안 자리보전을 하다가 깨어나 집안 살림은 은조가 도맡고 있다.

혜민서 병자들을 돌보는 은조의 눈에 양반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절한 현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탐관오리의 수탈로 굶고 굶다 영양실조에 걸린 소작인들, 주인에게 이유 없이 맞고 실려 오는 노비들, 온갖 병에 시달리고 수없이 다쳐서 더 이상 약발조차 듣지 않는 이들.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은조는 양반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딱 그만큼만 도적질을 해서 그들의 병이 나을 때까지만 전해 주는 역할을 자처한다.

검은 옷에 백정 탈을 쓰고 밤에만 나타나는 이 의적을 향해 사람들은 '길 위의 동무', 줄여서 '길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길동의 정체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하다. 몸집이 건장한 백정이라기도 하고 온몸이 털로 덮인 괴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백 살 먹은 도사라고도 한다. 그런 소문 속에서 여인인 은조를 길동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왕인 이규(배우 하석진)의 배다른 동생 도월 대군 이열(배우 문상민)은 한량이니 망종이니 난봉꾼이니 하는 소문에 둘러싸여 산다. 그리고 소문에 걸맞게 이열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포청에서 하는 종사관 놀이. 타고난 명석함으로 잡아들인 범인만 해도 수십 명이고, 그때마다 처소의 내관과 궁녀들을 모아놓고 추리 이야기를 풀어놓는 맛으로 산다.

이열의 이런 행동들은 계획된 것이자 이규와의 약속이었다. 어릴 때 이열의 영민함을 알아본 선왕이 세자 이규 대신 이열을 보위에 앉히려는 의지를 품자, 이를 알아챈 세자가 이열에게 협박 같은 충고를 한다. "너의 총명함을 숨겨라. 절대 반짝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 네 어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후로 이열은 재밋거리나 찾아다니는 시시껄렁한 왕족으로 살아왔다.

근래 최대의 미궁인 길동 사건을 조사하던 이열은 저자에서 우연히 은조를 만난다. 대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이열과 길동의 비밀을 숨겨야 하는 은조. 그러던 어느 날 동자승이 건네는 청실과 홍실 팔찌를 받은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버린다.

영혼이 바뀌는 이야기는 보통 남녀 간에 바뀐 몸의 차이를 드러내고, 몸에 적응하는 과정에 집중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은애하는 도적님아'는 남녀 차이보다는 신분 차이에 주목한다.

드라마에서 은조와 이열은 두 번 영혼이 바뀌는데, 처음 바뀐 것은 상대의 신분 확인용. 하필 은조가 길동으로 있을 때 영혼이 바뀌는 바람에 이열은 은조가 길동임을 알게 되고, 은조 역시 이열이 실은 도월 대군임을 알게 된다.

두 번째로 영혼이 바뀌었을 때, 드라마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며 좀 더 진지해진다. 천한 신분이 겪는 핍박과 여인이 받는 설움을 체험하는 이열과 왕족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인 압박을 실감하는 은조. 이열은 본의 아니게

여성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영혼 바뀐 설정, 신분 따른 고통 보여
신분 귀천, 스스로 정한다는 메시지도
부처님, 계급 상관없이 출가자로 받아
모든 이 존중하고 집착 없이 사랑하길



'은애하는 도적님아'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길동의 행세를 하면서 고달픈 백성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은조는 궁궐의 부패한 왕과 간신을 목격하고 조선의 암울한 미래를 깨닫는다.

그렇게 영혼이 바뀌어 각각의 신분으로 바라본 조선을 확인한 이열과 은조는 폭군이 된 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직접 반정에 가담하여 새로운 세상을 연다. 여인 홍길동의 율도국은 멀리 있는 외딴섬이 아니라 새로운 조선이었다.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연산군 때에 활동 기록이 있는 실존 인물 홍길동이 모델이다. 무관직을 지낸 홍상직의 얼자로, 소설 속 홍길동처럼 도적이긴 한데 도적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실제 홍길동은 충청도 충주 일대를 무대로 정3품 당상관을 자칭하면서 무리를 이끌고 마음대로 관가를 드나들며 도적질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홍상직의 적자이자 홍길동의 배다른 형제들이 왕실과 연결되는 실세로 떠오르면서 홍길동 무리는 단순히 도적 떼라기보다 권력과 결탁한 조직폭력배 또는 정치깡패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이들을 유교 윤리를 어긴 강상죄로 처벌했을까.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때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시오소서(연산군 6년[1500] 10월 22일)"라는 실록의 기록을 보아도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실존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소설로 만난 홍길동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통쾌함을 주는 우리 민족의 어엿한 히어로 캐릭터이고, '은애하는 도적님아'는 소설 홍길동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산군의 당시 상황과 실존 인물인 홍길동의 사정을 골고루 조합한 드라마다. 폭군인 왕 이규는 누가 봐도 연산군이고, 도월 대군 이열은 반정으로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이 된 진성 대군이다. 은조의 아버지 홍민직은 실존 홍길동의 아버지 홍상직을 연상시키며 드라마의 최대 빌런 임사형(배우 최원형)은 중종반정 때 제거된 임사홍인 셈이다.

물론 이 드라마가 역사를 재현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연산군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규가 폭군이었던 것은 사실 임사형이 연숙화의 독으로 이규를 중독시켜 나타난 증상이었음이 밝혀지고 이규는 자진해서 왕위를 이열에게 물려준다. 임사형도 처형되지 않고 자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왕이 된 이열은 아예 혼례를 치르지 않고 이규의 아들을 극진히 보살피며 다음 왕위를 잇도록 한다.

드라마의 마지막, 은조는 유배지에 있는 임사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아시겠지만 영감께서는 양반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 저와 같은 신분이 되셨지요. 해서 묻습니다. 그로 영감께서는 천것이 되셨습니까? 스스로 귀함을 내던지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귀천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천해졌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천해진 것이냐고 묻는 은조의 말에서 경전 한 구절이 떠오른다. "출생에 의해 그가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바라문이 되는 것도 업에 의해서고, 바라문이 되지 않는 것도 업에 의해서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타고난 계급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은 4성 계급이 엄연한 인도에서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출가자로 받아들였다. 교단 안에서의 서열은 오직 출가 순서뿐이었다. 천민 계급이었던 이발사 우발리는 10대 제자가 돼서 부처님 열반 후 가르침을 모으는 자리에서 생활 규범을 주도적으로 정리했다. 심지어 살인자인 앙굴리말라까지도 출가 수행자가 되어 아라한과를 얻었다.

드라마 '은애하는 도적님아'는 '도적님'과 '은애'라는 단어를 통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진중하게 대변하고 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현대사회, 홍길동이 그토록 꿈꾸었던 율도국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나부터, 공명정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은애하는 어느 님아'는 누구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라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살다 보니 사람 목숨도 참 하찮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으로 먹고사는 것도 큰 부담이 되니 인생이 참 고단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는지요.

답변 오늘날의 우리 불교가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의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가 아파도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참 문제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후도 바로 지금이 있어야 사후가 있는 거지 지금이 없는데 사후가 있겠습니까.

굼벵이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게 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건만 굼벵이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늙어 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쳇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햇빛 주랴, 묵은 빚 갚으랴, 이건 여념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머리는 허옇게 세어지고 인제 수족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마음 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날 기복으로 그저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치우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 오너라, 덜 가져 오너라, 많이 가져 오너라, 맛있는 거 가져 오너라, 다 내가 먹겠다' 이럽디까? 그러니 어느 종교나 기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 놓을 때 공짜로 떼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따로따로 있지만 한번 만나면 둘이 아닙니다. 한마음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헤어졌을 때는 너고 나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에 이렇게 만나서 이럴 때는 원력이 있는 스님네라면 스님네한테 충전을 해 갑니다. 충전 있죠? 전기에 꽂아 놓으면 충전되듯이. 충전이 돼서 한 일주일 가면 또 충전이 빠져요. 그럼 또 충전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며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냈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어째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이란 이름 따로 있고, 아니, 그렇게 이름이 많아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조화를 이루려니까, 회전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이 제각각이죠. 이름은 각각이나 그 이름이 해 줍니까? 이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개야!" 부를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에는 이름,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죠. 그러나 필요 없지 않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진리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면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없고 이름을 불러서 서로 웃을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그 능력을 길러서 모든 걸 안다면 이 몸도 그냥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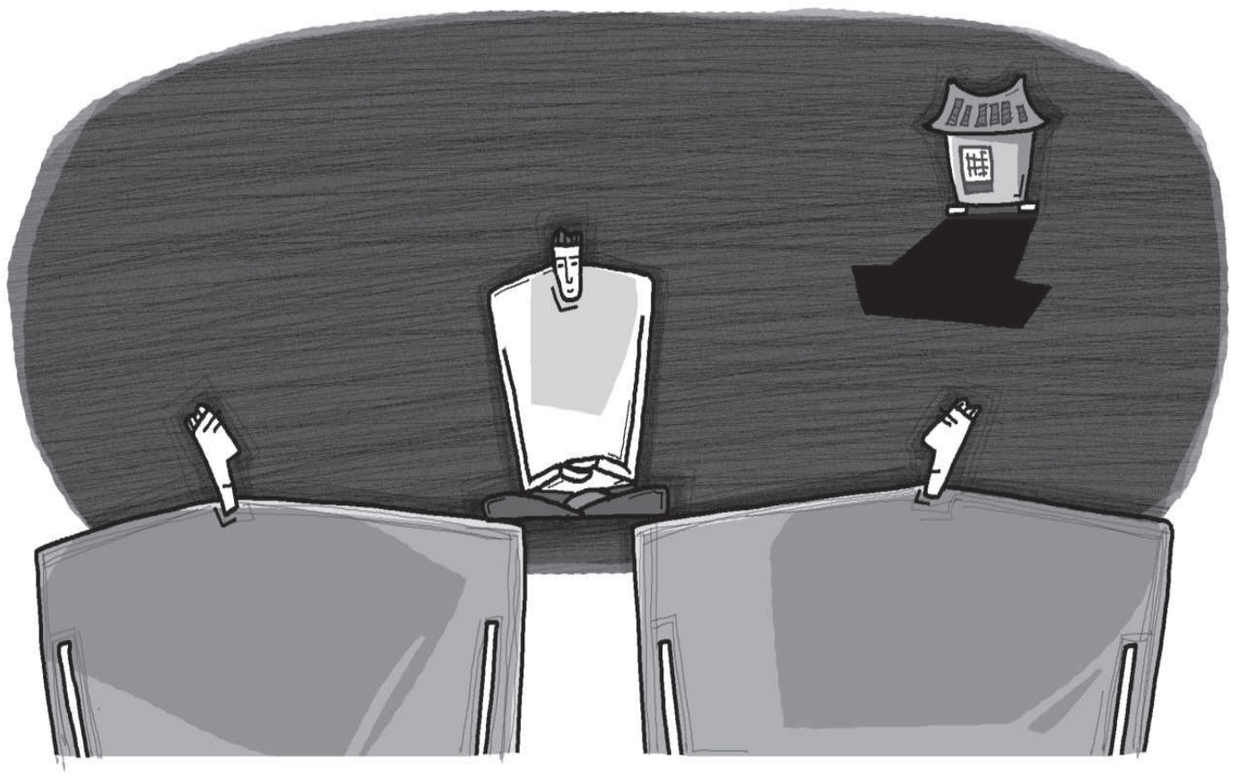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질문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는지요.

답변 우리가 생활이나 몸에 대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을 해 나가려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이 한 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세계를 보고, 우주적으로도 지금 앉은 방석을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화병에 꽃을 꽂아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생활이 잘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조화가 잘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이 생명 저 생명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지마는 둘이 아니면서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너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가 없으면서도 여자 남자가 뚜렷하게 있어 여자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 할 일은 남자가 하듯이 그렇게 뚜렷한 것입니다. 모습 모습은 다 각각이나 둘이 아니게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생각을 내도 지혜롭고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참나를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라

☞ 19면에서 계속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깨친다 안 깨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 되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닿아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건 안 된다는데….' 이러거든요. 아니,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로 치고 마음 내기 이전은 '부(父)'로 쳤습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는 부가 자로 하나가 돼 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누구 형상에다가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걸 알고 하면 절을 해도 자기요, 모르고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 우리의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까지 딛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체험을 해 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백 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건 거짓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온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응이 와서 느껴진단 말입니다. 점점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악심도 근본 자리의 작용인가요

질문 일체가 한마음의 나툼이라 한다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내는 것도 한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부처님 자리에서는 다 좋은 마음이 나야 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좋은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바로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 짓도 나오고, 또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도 그 한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바로 거기다가 다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는 본래 다 알거든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욕심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집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본래. 전부 알고 계시죠? 그걸 좀 대담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공, 이런 거 잘못되면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일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앞에 강이 있는데 그냥 그게 길이라고 가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냥 가야 옳겠습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서 시키기는 대로만 한다면 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빠져 죽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문리를 틔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던져 보는 겁니다. 던져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빵점을 먹으면 도루묵이 돼 버립니다. 그 시도한 것이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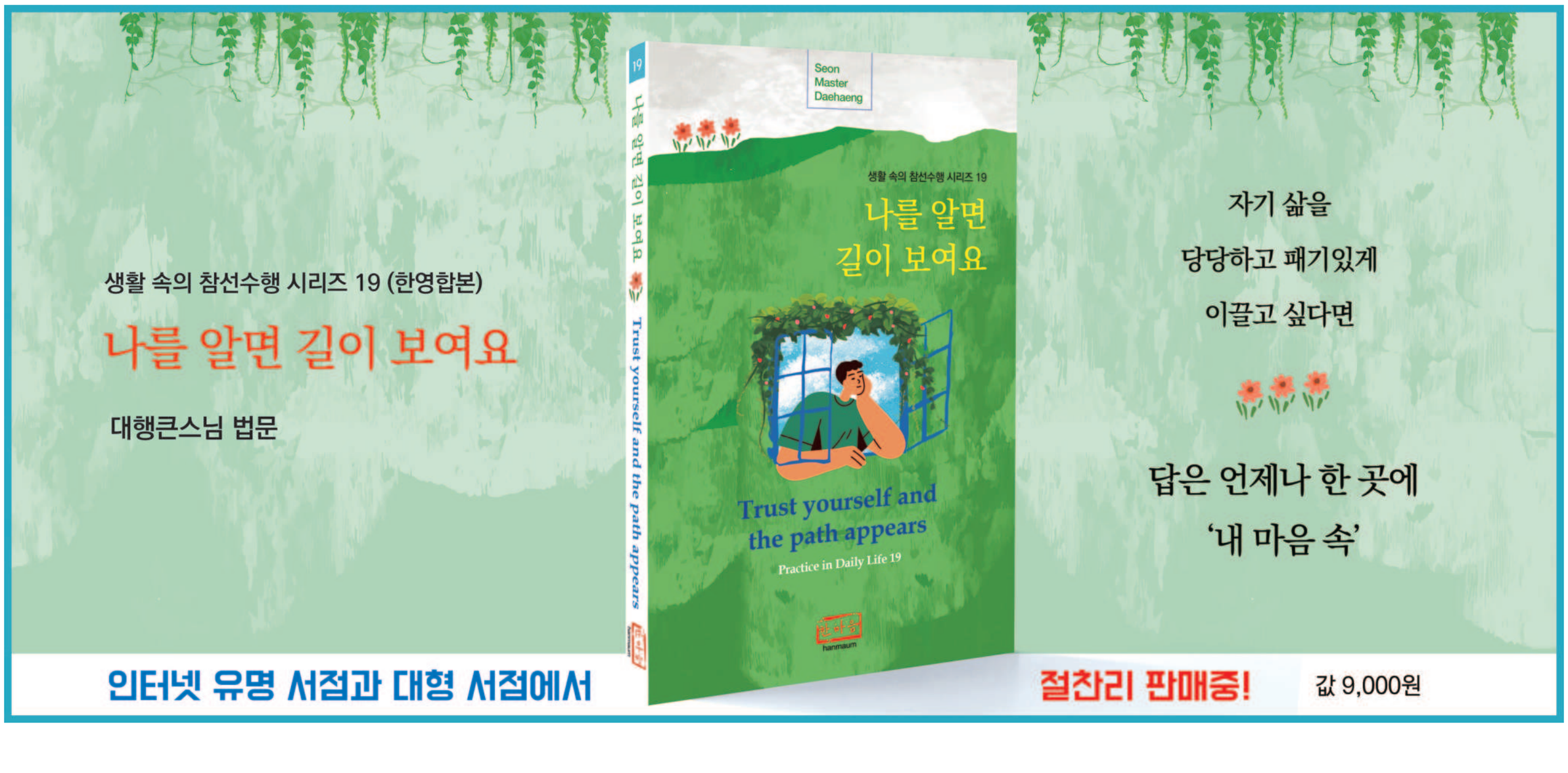
만약에 조용히 일하다가 갑자기 '너 나가서 춤 좀 춰 봐.' 이러면 춤추겠습니까, 또? '응, 내가 어떡하나 보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 누가 되고 자기한테 누가 되는데, 가정에 누가 되고 모두에게 누가 되는데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다스려야죠, 이제 마음을. 거기서 나오는 대로 좋은 거는 하고 언짢은 거는 '아, 이럭하면 안 되잖아, 누가 되는데.' 하고 거기다가,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이러는 거구나.' 하고 거기다가 되놓고, '참,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놔야지, 제자리에다 되놔야지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하고 온통 주인공이 시키는 대로만 또 좇아간다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사람이 잘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으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아휴, 우리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스님한테 왔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판단은 자신들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이럴 때가 많죠. 아, 자기네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는 사는 사람들이 판단을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겠습니까? 주인공에서 나쁜 걸 시키든지 좋은 걸 시키든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시키는 거는 뜻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걸 시키는 거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양면을 다 놓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잘 내서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믿는 거고 저래도 믿는 거죠, 자기를 가르치는 채찍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자꾸 뜻을 보는 거니까.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자기 마음의 스승이니까. 자기 마음의 스승도 됐다가 때에 따라 친구도 됐다가, 때에 따라 부처도 됐다가 법신도 됐다가, 때에 따라선 부모 조상도 됐다가 자기 영혼도 됐다 별놈의 게 다 돼서 돌아가요. 한 아버지가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모두 이렇게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 묘한 법을 여러분이 잘 채택해서 잘해 나갈 수 있어야만 이 그대로, 무심에서 나가는 그 모든 도리가 법이 돼서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다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심부름꾼이 뭘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있습니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 이 도리를 잘 아시면 나쁜 것도 법이고 좋은 것도 법이고, 잘못하는 것도 법이고 잘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 양면을 다 놓을 수 있다면 그거는 도(道)입니다. 진리입니다. 본래 진리라는 것은 놓고 가고 있습니다. 놓고 가는데 괜히 여러분이 붙들고 괜히 앨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좋은 것도 자기가 한 거고 나쁜 것도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둘 다 싸잡아 쥐고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게 좋은가를 자기 스스로서 지켜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쁘다 좋다를 거머쥔 채 자기는 '아하, 이것을 운전은 내가 하는 거로구나. 나침반이 나로구나.' 하고서 그걸 거머쥐고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⑦ 건강한 애도로 나를 찾는 여정

"죽은 아내가 내게 얘기합니다"

25년의 헌신, 그리고 남겨진 텅 빈 시간

상담실 문을 두드리신 김상담 어르신(가명·75)은 퀭한 눈으로 내내 손에 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르신의 지난 25년은 오로지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거동조차 불편해진 아내를 돌보는 일은 어르신에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집안에 대대로 유전병으로 인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병원비부터 아내의 오랜 투병까지 책임지느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직으로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볼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뒤 어르신에게 남겨진 것은 평온함이 아닌 견디기 힘든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텔레비전의 미세한 잡음이나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죽은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환청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죄책감과 배신감, 마음의 상처

어르신이 겪는 불안과 환청의 기저에는 '죄책감'과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더 좋은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아내가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갔다"며 아내의 죽음을 온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눈물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자책감은 가족 관계에서도 깊은 멍울을 만들었습니다. 간병에 매달리느라 하나뿐인 자녀마저 동생 손에 맡겨야 했던 미안함은 어르신의 가슴에 큰 돌덩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은 단절됐고 아내의 장례식에도 평소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자, 어르신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다",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안다"는 극심한 배신감과 대인기피 증상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외로워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서도, 누군가 다가오면 또 이용당하고 상처받을까 봐 밀어내는 두려움이 어르신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문제 해결 넘어 '건강한 애도'의 시간으로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사별 후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습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흔히 "이제 고생 끝났으니 잊어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며 성급한 조언을 건네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김상담 어르신처럼 25년을 한 사람을 위해 살았던 분들에게 이런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배우자를 잃은 깊은 슬픔을 온전히 표현하고 충분히 비워내는 '건강한 애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급성 정신 불안을 겪는 어르신에게 당장 친구를 사귀라거나 무조건 약을 잘 챙

헌신적 간병 뒤 찾아온 깊은 상실감
자책감 다독이며 '건강한 애도' 거쳐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 재구성

겨 먹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병원 진료 시간이 너무 짧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의사가 오롯이 들어주지 않는다"며 서운한 마음에 자의적으로 약 복용을 중단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밀린 숙제를 하듯 문제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잃은 깊은 슬픔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위로받는 '애도 상담'입니다. 25년간 모든 것을 바쳐 가족을 지켜낸 어르신의 헌신과 강점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따뜻하게 다독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조심스러운 첫걸음

상담이 거듭되면서 어르신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상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조금씩 바깥으로 나갈 용기를 내셨고, 거주지 근처 노인복지관에도 방문해 사람들과 어울려 보려는 작은 시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직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서먹하고 낯설다고 하시지만, 그동안 아내의 남편이자 간병인으로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무척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 피하고 자비로 나를 안아주기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인 〈아함경(阿含經)〉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행자여,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아픔, 즉 애별리고(愛別離苦)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뒤에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자신에게 쏘아대는 무서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어르신은 이미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첫 번째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인내와 헌신으로 가족을 지켜내셨습니다. 죽은 아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는 사실 어르신의 내면이 보내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좀 돌봐 달라"는 애절한 부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허망함과 자책감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토록 긴 시간 고생해 온 자신을 향해 깊은 자비(慈悲)의 마음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을 위해 텅 비어버린 마음의 빈자리를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인연의 온기로 채워갈 때, 어르신의 남은 여정은 다시 평안하게 빛날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⑥⓪ 무릎 퇴행성관절염

무릎 통증, 두려워 말고 걷는 즐거움 되찾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좋은 곳을 찾아 거니는 하루.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늘 걷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 평소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걷는다는 것은 일상을 이어가고 사람을 만나며 삶의 리듬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자체보다도 "이제는 잘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시지만, 통증 때문에 걷는 양이 줄어들면 활동량 저하와 근력 감소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보행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고 관절 주변에 염증과 변형이 생기면서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무릎을 많이 써서 생긴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체중, 생활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비만이거나 무릎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습관,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에 부담이 큰 반복 동작은 발생 시기를 앞당기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과 뻣뻣함으로 시작돼 오래 걸을 때 불편한 정도이지만, 질환이 진행되면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오래 서 있기 같은 일상적인 동작까지 불편해지고, 심한 경우 보행 속도가 느려져 평소 함께 걷던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버틸 일은 아닙니다. 치료는 대개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운동치료를 시행합니다. 적절한 약물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염증을 가라앉혀 더 잘 걷게 하고, 그 결과 근력 유지와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염진통제는 통증이 심한 기간에 복용하여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끊고 체중 관리나 운동 등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사치료 또한 급성기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꾸준한 운동치료는 무릎 주변 근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근력은 치료의 중요한 축입니다. 허벅지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외전근이 약해질수록 무릎이 받는 부담은 더 커지고 통증도 쉽게 심해집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물·주사 치료 등 비수술 치료부터
심한 통증·기능 저하 시엔 수술 고려
통증 관리 강화로 수술 후 통증 줄어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능 저하가 심해 일상생활이 무너진다면, 인공관절 치환술이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X-ray 검사에서 관절염이 심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관절염의 정도와 실제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술 여부는 통증의 정도와 보행 능력, 나이, 무릎 정렬, 보존적 치료에 대한 반응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그러니 병원을 찾는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관절면을 인체에 안전한 재료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단순히 닳은 관절을 갈아 끼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통증을 줄이고 다리 정렬을 바로잡아 다시 걷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술 후 통증과 재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고통스러운 무릎 꺾기 재활 때문에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자체의 성공보다 환자분들의 통증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수술 전후 전체 과정에 걸쳐 통증을 다각적으로 조절하는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도입돼 수술 직후의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강제로 무릎을 꺾지 않아도 충분한 관절 운동 범위가 나오며, 허벅지 근력만 충분하다면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조기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릎을 아예 안 쓰는 것이 답이 아니라, 무리가 덜 가는 방식으로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지 걷기, 수영, 허벅지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외전근의 근력 운동은 많은 도움이 되고, 반대로 급경사 산행이나 오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통증을 오래 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내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들고, 그에 맞는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는 즐거움을 다시 찾는 일, 그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희윤
거인병원 관절센터 과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0622-중-155142호

세워라 척추! 걸어라 관절! 거인처럼!!



거인병원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우리 복지관은 지금 8. 연꽃어린이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돌봄을 위해



연꽃어린이집 재원생들이 지원 사찰인 도리사에서 돌탑 쌓기 체험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K-보듬6000'은 1년 365일, 24시간 돌봄 공백 없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감싸안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돌봄 모델입니다.

'자비로운 어린이'라는 원훈 아래 보육에 전념해 온 구미 연꽃어린이집은 이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누군가를 위해 24시간 문을 열어두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곧 살아있는 포교이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연꽃어린이집이 'K-보듬 6000'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지 어느덧 2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부모님들의 사정은 저마다 간절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분들,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 혹은 갑작스러운 주말 업무로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연꽃어린이집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도, 모두가 쉬는 공휴일에도 저희 선생님들은 변함없는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해 왔습니다.

연꽃어린이집은 부모님이 안심하고 생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꽃만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꽃어린이집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는 학부모님의 격려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교직원들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매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즐거움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느라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해 어린이집을 작은 공연장으로, 때로는 신나는 놀이터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며 꿈을 키우고, 교실 가득 설치된 에어바운스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마당 풀장에서의 물놀이와 지원 사찰인 도리사를 방문해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스님과 함께 나눈 공양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정서적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는 더 깊은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비의 품에는 차별이 없듯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연꽃의 따스함을 온전히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케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꽃어린이집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장애 전담 교사 배치와 같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돌봄'은 연꽃어린이집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더 깊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똑같이 행복을 누리는 공간, 365일 사랑이 마르지 않는 '자비의 연꽃동산'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정진하겠습니다.



김성진
연꽃어린이집 원감

대만불교 포교일기 ④ 보살의 마음, 청년의 힘

박람회 너머 청년 관심, 신행으로 이어야

최근 막을 내린 불교박람회 현장은 그야말로 '청년들의 바다'였다. 그곳의 수만 명의 젊은 세대를 보며 필자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목격했다. 이제 불교는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정신적 안식처로 다가가고 있다. 포교 일선에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설득력 있는 지표는 없다.

필자는 그 뜨거운 열기를 보며 불광산 창건주 성운 큰스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겼다. "청년이 없으면 불교의 미래도 없다"는 서원 아래 큰스님께서 제시하신 '보살의 마음, 청년의 힘[菩薩心 青年力]'이 바로 그것이다. 박람회에서 확인한 청년들의 관심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신행과 출가의 원력으로 이어갈 것인지, 그 해답을 불광산의 역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사실 오늘의 불광산을 일군 뿌리는 바로 '청년'이었다. 1950년대 대만 이란(宜蘭)에서 전법을 시작할 당시, 성운 큰스님께서는 가장 먼저 청년 포교대를 조직하셨다. 불교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큰스님께서는 직접 집필한 원고를 청년들에게 주어 그들이 대중 앞에서 불교 강좌를 열게 하셨다. 스님의 지혜를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는 이 파격적인 방식은 당시 대만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놀라운 점은 7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큰스님과 함께 전법의 길을 걸었던 그 청년들이 오늘날 불광산을 지탱하는 거목이 됐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불광산을 만든 주요 원로 스님들과 전 세계에서 불광회를 이끄는 핵심 신도 리더들 대부분이 바로 그 시절 이란에서 큰스님과 함께 전국을 누비던 '청년 포교사'들이었다.

오늘날의 불광산 일군 뿌리는 청년
청년 붐빈 박람회서 韓불교 희망 봐
청년 교단 연계 강화·성장 방안 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람회에서의 일시적인 관심을 지속적인 신행의 선(線)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배려다. 불광산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스카우트에서 시작된 인연이 불광청년단을 거쳐 성인 조직인 국제불광회로 이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결합해 있다. 특히 불광청년단에는 '백상(白象)', '천마(天馬)', '금사자[金獅]'로 이어지는 정교한 간부 승급 제도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불광산 역사상 재가 청년의 최고 영예인 '금사자' 간부가 아직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천마' 단계에 도달해 리더십과 신심을 증명한 청년 간부들이 금사자가 되기 전 모두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 '행복한 역설'은 불광산의 청년 포교가 '출가자의 요람'이자 우수한 포교사를 길러내는 사관학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운 큰스님께서는 늘 청년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사급(四給)'의 정신을 실천하셨다.

이란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강좌를 맡기셨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박람회에 열광했던 청년들에게 더 넓은 무대를 내어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 다시 해보라"며 지지해 줄 때, 그들은 사찰을 자신의 집처럼 느끼며 '젊은 보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교박람회에서 본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어린 시절의 인연이 청년기를 거쳐 성숙한 포교사나 수행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단 내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70년 전 이란의 청년들이 오늘의 불광산을 만들었듯, 지금의 청년들이 훗날 한국불교의 주역이 되어 법륜을 굴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간절히 발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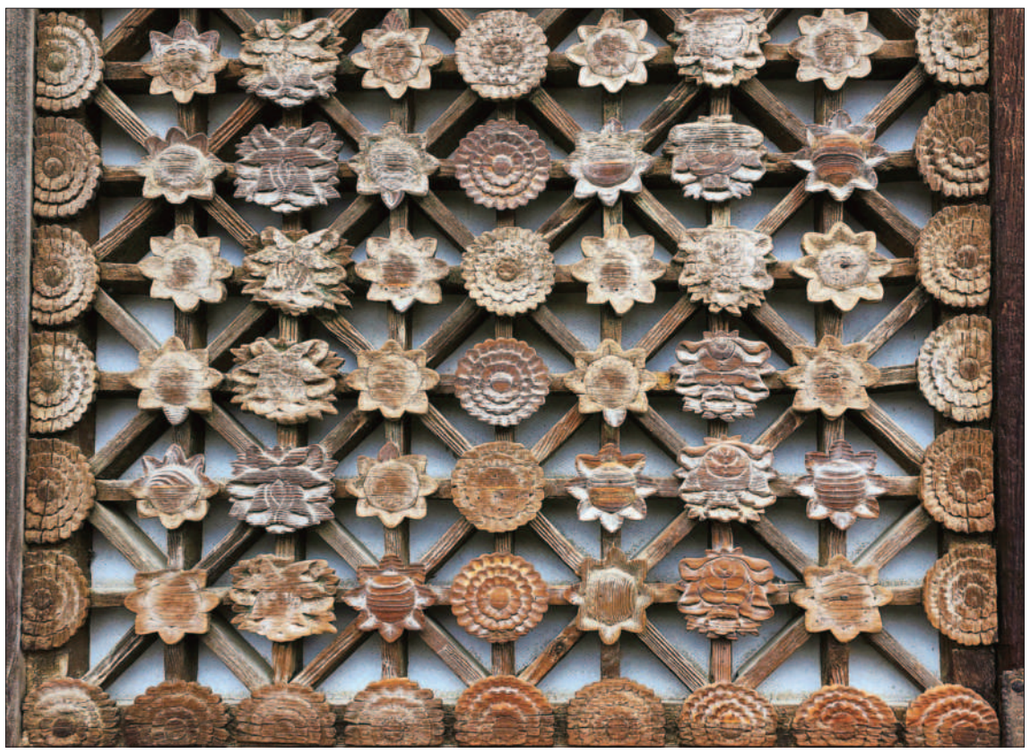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⑭ 사찰은 한국 전통문화의 미래

한국의 사찰은 전통문화의 보존뿐 아니라 계승과 발전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찰의 중창과 중건이 없으면 직업인으로서 전통 건축 분야의 장인은 존재할 수 없다. 좋은 건축주로서 스님들은 장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최고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통도사 적멸보궁의 꽃살문은 좋은 건축주로서의 스님들의 안목과 정성의 산물이다. 이 꽃문 앞에서 내 젊은 시절의 어떤 만남을 떠올린다.

1976년 가을, 남대문 근처 동방빌딩 19층에서 매우 정중하고도 인자한 노신사를 만났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었다. 이병철 회장님은 일본 고단샤(講談社)에서 펴낸 도자기 도록을 보여주며 이렇게 찍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최적의 세트가 필요하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얼마 후 비서실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다 갖추어 놓았으니 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다행히도 결과물이 이 회장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후로 나는 디지털 사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호암미술관의 사진을 찍었다. 대단한 행운이었다. 충분한 보수를 받았고 덕분에 인사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사찰은 한국 전통문화를 담지할 뿐 아니라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하는 장인들의 후견인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우리 사찰의 미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손영자 작가**



통도사 적멸보궁.



‘심화’를 다스리는 길

〈心火〉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히말라야 포카라, 해발 1400m. 그곳에 작은 법당을 세우고 약사여래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을 모셨다. 시작은 하나의 발원이었다. “부처님 태어나신 땅, 그 길을 다시 잇자.” 윤지웅 홍대선원 청년대표와 2700여 년 전 싯다르타 태자가 걸었던 길 위에 순례자들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세우고 잊힌 순례길을 다시 열자고 다짐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걸을 수 있는 ‘깨어 있음의 길’을 만드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우려가 앞섰다. 그러나 발원에 공감한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백 명이 넘는 이들이 모였다. 우리는 원정대를 이루고 히말라야로 향했다. 누군가는 직접 산을 올랐고, 누군가는 뒤에서 지원했으며, 누군가는 기도로 함께했다. 그렇게 하나의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힘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홍대선원 청년 스텝, 서보우.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영화학을 전공하던 그는 히말라야 프로젝트를 기록하기 위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이 여정에 합류했다. 젊은 시선으로 이 길을 기록해 세상에 전하겠다는 마음이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인 서칠교 작가의 작업실이 화재로 전소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히말라야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막연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작품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연 맞물린 히말라야 순례길 프로젝트
화마 피한 서칠교 작가 불상 봉안한 뒤
‘심화’ 알아채고 다스리는 수행 되새겨

부처님 한 분과 보살님 한 분은 남았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두 분. 순간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다. ‘두 분을 히말라야에 모시자.’

6개월 동안 2000여 명의 제자와 인연들이 마음을 모은 덕분에 마침내 히말라야 임시 법당에 두 분을 모시게 됐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이 길은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맞물려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올해는 유난히 ‘불’의 기운이 강하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곳곳에서 체감하고 있다. 자연의 재난, 사회의 갈등, 사람 사이의 분노. 바깥의 불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불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집착, 욕망, 두려움. 바로 ‘심화(心火)’다.

화마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불을 피하는 것도, 없애는 것도 아닌, 다스리는 것이다. 밖의 불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안의 불은 다스릴 수 있다. 심화를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힘이다.

히말라야에 모신 약사여래 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은 화마를 통과한 존재다.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난 존재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불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은 작은 불씨처럼 마음속에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깨어 있음’이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힘. 불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불을 이겨낸 부처님 앞에서 나는 조용히 발원했다. “올해는 마음 다스리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나는 불교강사, 질문을 받습니다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불교 입문자를 위한 기본교육 강의 때의 일이다.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강의를 2회 하게 됐다. 그런데 룸비니 동산에서의 탄생에 앞서 반드시 짚어주는 내용이 있었다. 불교에는 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그중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가야 할 부처님은 역사상 실제로 살다 가신 석가모니라는 설명이었다. 그렇게 운을 떼고 설명을 막 시작하려는데 한 수강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기요, 부처님이 진짜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질문을 받은 나는 뜨악하고 살짝 불쾌해졌다고 고백한다. 어떤 질문도 환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내 강의실에는 이따금 너무 엉뚱한 걸 묻는 이가 있고 심지어는 선문답을 하자는 이도 있었기에, 이 질문도 그런 것일까 하여 잠깐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 수강생이 화급하게 말했다. “나는 부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부처님 일생을 설명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그의 솔직한 궁금증을 마주하자니 처음 품었던 불쾌감이 부끄러워졌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교는 너무나 익숙한 종교로, 불교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가 태반이다.

절은 조용한 곳이고 49재를 지내는 곳이며 사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냐” 초심자 질문
불교 인생 바꿀 첫 궁금증, 내 화두 돼
입문자 삶 변화 이끌기 위해 열심 다짐

시사철 사진 찍기 좋은 곳일 뿐, 아니 그나마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 템플스테이를 하는 곳이라는 점 말고,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불교는 또 무엇으로 자리하고 있을까.

골목마다 ‘만(卍)’ 자가 눈에 띄니 그건 점치는 곳이고, 보살이란 말은 점치는 사람이나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붙는 호칭이다. 절은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조용히 다녀오곤 했던 곳이니 그 그리움으로 찾을 뿐,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존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서 몇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그 거리감이 너무나 크다.

석가모니라는 분이 인도에서 태어나서 실제로 살다 가신 분이라 해도 그 정도의 정보에서만 대부분은 멈춘다. 그런데 불교를 알고 싶고, 제대로 된 불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겠노라 마음을 낸 그 입문자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던 것이다. 정말로 그런 분이 살다 가셨느냐고.

어찌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는 불교에 대해 첫 궁금증을 스스로 일으킨 것이었다. 나는 이 질문으로 그의 불교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처님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이가 된 것일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 이후 내게 그 질문은 화두가 되었다. 불교 강의하는 자리에는 틀림없이 그 수강생 같은 이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에게 첫 번째 궁금증을 일으키는 데에 마음을 쓰겠노라 다짐한다. 행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쏟아내 입문자를 더 당혹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社說

종교의 이름으로 헌법 가치 훼손 말아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다. 가톨릭이 주관하는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공교육 시설과 교육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과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근본 가치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세계청년대회는 명칭과 달리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다. 교황이 주재하는 미사와 신앙 프로그램이 핵심인 가톨릭의 종교 행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조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시설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제도화하려는 것은 공공 영역과 종교 영역의 경계를 흐리는 위험한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 행사에 교육예산·시설 지원 추진
‘간접 선교’ 논란…공교육 중립성 우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공교육 자원의 동원이다. 조례안은 서울시 1200여 개 학교의 체육관 등 시설을 숙박과 행사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고, 급식·위생시설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사실상 종교 행사 지원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방학 기간이라 해도 돌봄과 자율학습 등 교육 활동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하다. 특히 학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까지 검토되고 있는 점은 교육재정의 종교 행사 전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은 공공성과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다. 특정 종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행사에 학생들이 노출되는 상황은 교육 환경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위축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간접적 선교 효과’도 엄연한 문제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고, 국회에서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자 조례 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청년대회가 대규모 국제행사로 도시 위상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 효과가 헌법적 가치와 공교육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심의에 앞서 공교육의 본질과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 교육청 역시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 보호라는 책무를 최우선에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국제 행사 지원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공공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4월 2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4월 2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4월 2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拂子

下心으로 예를 올리는 자리
수행의 기품을 완성합니다

청정수행의 표상이신
태덕 큰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불자(拂子)는?
큰스님들께서 설법 또는 수행시 사용하는 법구(法具)로
마음속의 번뇌와 잡념을 털어내는 대표적인 법구입니다.



- 주문제작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종단 문양과 법명이 각인됩니다
- 불구(佛具)별 고급케이스로 포장됩니다
-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하몰! 010-8825-4367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